



#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4>





#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4>



## 차례



이상정 ..... 5



이태준 ..... 22



조지 루이스 쇼 ..... 37



마거릿 히긴스 ..... 51



이정숙 ..... 68



양리 모로 드 블랑 ..... 84



박관현 ..... 94



김수환 ..... 112

# 이상정

1896. 6. 10. ~ 1947. 10. 27.



2017년 4월, 이철의 독립운동가  
교사에서 항일 운동가로



## 전략가 이상정



이상정

“평 장군은 어디에 있나? 평위상 어디에 있냐고.”

중국 북서부 군벌 출신이자 현재 일개 마적단 두목이 된 지린이 포로로 잡힌 평위상 장군이 이끈 국민혁명군의 참모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평위상 장군은 북경 정변을 일으켜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를 자금 성에서 내쫓은 장본인이었다. 지린은 한때 잘나가던 중국 군벌이었다. 그는 약 1만 명의 병력으로 중국 북서부 일대를 주름잡았지만, 평 장군이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에 의해 격파되고 해체되었다. 그 역시도 죽을 운명이었지만, 가까스로 탈출하여 복수의 날만 기다린 끝에 평 장군이 다른 군벌과의 회담을 위해 봉천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그를 기다려 제거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지린의 예상은 빗나가고 평위상의 참모장만을 붙잡은 채 그를 심문하고 있었다.

“나도 평 장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오. 지린 장군도 알다시피, 평 장군은 행동이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참모장이라고는 하나, 그의 행방을 알 도리가 없소이다.”

“거짓말, 거짓말이다!”

지린은 참모장을 노려보며 욕박질렀다.

“장군, 장군!”

그때 지린의 부관이 군 막사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왔다.

“뭔가?”

“지금 모래폭풍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뭘 그런 일로 새삼스럽게 놀란 표정인가? 이곳은 모래폭풍이 항시 부는 곳 아닌가?”

“그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평위상** 馮玉祥(풍옥상, 1882. 9. 26 ~ 1948. 9. 1). 중국의 군인·정치가. 중국 국민당에 입당하고 서북국민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북벌에 협력했으며, 항일전쟁 중 국공합작 이후 국방 최고 위원으로 활동함.



부관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지린은 서둘러 막사 밖으로 나갔다.

고비사막에서는 보통 3월이 되면 강수량 부족으로 거센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는 데, 마을을 집어삼킬 정도로 위력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9월이 아닌가? 9월이라면 지금 눈앞에 몰아치는 저 거대한 것은 모래폭풍일 리가 없었다. 이것은 필시 대병력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명백했다.

“대략 2km 정도로 늘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린 부관이 쌍안경으로 살피며 말했다.

“음 ……”

지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2km라면 최소한 2만의 병력에 수백 마리의 말이 이곳으로 약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어찌할까요?”

“일단 후퇴한다.”

“그럼 참모장은?”

“…….”

“장군님!”

지린 부관은 속히 명령을 내려달라며 재촉했다.

“저들의 목적은 참모장이니 저자를 죽이면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이곳에 버리고 철수한다. 이상.”

지린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서 피해야 한다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소금기만 잔뜩 앉아 있는 입술에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떨어졌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의자에 묶인 채 있던 참모장의 입술에 물을 적셔준 건 바로 평위상 휘하군의 참모장 막료였던 이상정이었다.

“이직 막료 ……”

“참모장님, 이제는 안전합니다.”

“고, 고맙네. 이 막료.”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참모장님.”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상정은 30여 명의 국민혁명군 병사들에게 말했다.

“모두 철수한다.”

“예!”

이상정이 중국군을 지휘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린이 고작 30여 명밖에 안 되는 국민혁명군을 2만 명이 넘는 대병력으로 보고 오해한 것이었다.

우선 이상정에게는 백여 필의 말이 있었다. 이상정은 말들을 2열 횡대로 세운 뒤 그대로 달리게 했다. 백여 마리의 말들이 내달리자 가뜩이나 메말라 있던 고비사막에 거대한 모래 먼지가 날렸고, 그 모래 먼지를 보고 지린은 대규모 병력이 달려오는 것으로 지레 겁먹고 철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참모장은 이상정을 이직이라고 했을까?

이상정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생소한 것은 그가 독립운동 내내 가명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연호’ 혹은 ‘이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일제의 집요한 추적은 따돌릴 수는 있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못했다.

## 망명길에 오르다

1896년 대구에서 맏아들로 태어난 이상정은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했다. 이상정의 4형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꽤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은 민족 시인 이상화가 그의 둘째 동생이며, 셋째 이상백은 역사학자이자 우리나라 체육 행정가로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이다. 또 넷째인 이상오는 사냥 전문가이자 저술가로 활동했다.

1910년대 초 일본으로 유학을 간 그는 성성중



이상정



왼쪽부터 저항 시인 이상화(동생),  
최초 여류비행사 권기욱(부인), 맏아들 이상정  
[출처] 독립기념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후에 중국군에 복무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17년경 고국으로 돌아와 대구 계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으며, 1920년대 초에는 평양의 광성고보 그리고 경성의 경신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그는 중국에서 중국군에 복무하거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며 항일 독립운동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중국군에서 참모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 의정원 의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한, 이상정은 군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면서 학자였으며 시, 서예, 그림에 조예가 깊은 예술인이기도 했다.

교사 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던 그는 틈틈이 중국어 공부를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 군대에 입대하는 건 어떨까? 중국에서 나름 군인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을 도울 기회도 생길 테고 말이야.’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이상정은 1925년 5월경 중국으로 떠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망명가를 남겼다.

“이 속에 타는 불은 저 님은 모르시고  
서운히 가는 뒤끝 애석히 눈에 박혀  
샘솟는 눈물 견잡을 수 없어라.”

몇 날 며칠 동안의 긴 여행 끝에 하얼빈에 도착한 이상정은 여관에 투숙하여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냈다.

“평 장군이 군소 군벌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있다고 하더군.”

“평 장군이라면 풍채 좋고 호탕한 장군 아닌가?”

“하하하~ 그래, 그래. 근데 몸은 거대한 산과 같은 양반이 무척이나 신중하더군.”

“이 사람아, 그리 신중하니까 이런 군벌들이 난립하는 시대에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는 거겠지.”

청나라가 멸망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변발을 하고 있던 사내 2명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누가 듣든 말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아침을 먹으러 다가 들린 식당에서 꽤 고급 정보를 들은 이상정은 입가에 얇은 미소를 지었다. 목

표가 생긴 것이었다.

“혹시 평위상 장군에 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난데없는 외국인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낸 두 사내에게 이상정은 술과 고기를 사주며 평위상에 관해 좀 더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도 들리는 소문으로 말해 주는 거라서 말이지요.”

“혹시 쑨원(손문) 선생을 아시오?”

“알다 뿐이겠습니까? 신해혁명의 지도자 쑨원(손문) 선생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게끔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쑨원(손문) 선생은 왜?”

“바로 평 장군이 쑨원(손문) 선생을 존경하고 **삼민주의**를 지지하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고 있소이다.”

“삼민주의를 지지한다고요?”

이상정은 그가 삼민주의를 지지한다는 말에 크게 소리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고 떨렸다.

“삼민주의를 지지한다고? 그가 말이지.”

사실 이상정이 중국으로 망명했을 때, 일제의 정보 보고서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

### “이상정의 중국 망명은 쑨원(손문)의 삼민주의에 공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길을 잘못 든 걸까? 주변에 민가는 없고 온통 사막뿐이다. 뜨겁다. 그리고 덥다. 수통엔 물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하얼빈을 떠난 지 벌써 40일. 난 지금 평 장군이 있다는 장가구로 가고 있다. 마적단만 만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그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내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이 절실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쓰러

---

**삼민주의** 쑨원(손문)이 제기한 민주혁명의 정치 강령으로, 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주의를 말함.

**공명** 깊이 동감하여 함께 하려는 생각.



이상정

저 죽으면 남은 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까지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 해 봤다.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은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이후뿐이다.’

이상정은 마지막 남은 물을 한껏 들이켰다. 그래봤자 한 모금뿐이었다. 기분이 꽤 좋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수통이 사막에 떨어졌다. 한쪽 무릎이 사막에 닿았다. 나머지 무릎 역시도 사막에 푹 박혔다. 상체가 흔들리더니 그대로 고꾸라지듯이 사막에 처박혔다. 모래가 입과 코와 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그것들을 막을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상정에게는 아직 의식은 남아있었다. 이대로 있다간 숨이 막혀 죽는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얼굴을 살짝 틀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얼굴을 덮쳤다. 그래도 좋았다. 최소한 숨은 쉴 수 있었으니까. 순간, 저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저승사자일까? 아니면 마적단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사람들의 기합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와 대포 소리 …… . 이 소리들은 꽤 익숙져 있었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아련하게 들렸다.

## 권기옥과의 만남

“깬어요?”

조선말이다. 중국으로 망명한 지 두 달 만에 들어보는 조선말이다. 익숙한 총소리와 조선말, 여긴 어딜까? 이상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혹시 조선 사람입니까?”

“네,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대구에서 온 이상정이라고 합니다.”

“평양 출신 권기옥이에요.”

이상정은 그녀가 조선 사람이라는 말도 놀라웠지만, 권기옥이라는 것에 더욱더 놀랐다.

“저를 아세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신문에서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망명을 떠나는 5월 21일 그날, 그는 남대문에서 봉천으로 출발하는 기차 역 안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우연히 보았는데, 중국 국민군에서 활약하는 그녀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호호호, 제가 아직 비행 실력이 미천한데 신문에까지 났다니 영광인데요.”

“제가 영광입니다, 권기옥 용사님!”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던 권기옥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권기옥의 신원 보증으로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이상정은 이곳 내몽고 수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수원은 평위상 부대의 본대로, 25만 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탕, 탕, 탕!’

그가 있는 숙소는 사격장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가끔 중국군의 사격을 보러 가고는 했는데, 오늘은 권기옥과 함께 그곳을 가 볼 참이었다.

‘탕~’

“오발이다, 오발이다! 어서 병원으로. 어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중국군이 다른 중국군의 등에 업힌 채 사격장을 빠르게 빠져나와 그들 옆을 지나갔다.

“요새 부쩍 오발 사고가 일어나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38식은 오발 사고가 꽤 일어나는 소총이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38식 소총인 줄은요?”

“38식 소총으로 쏘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또 쏘고 그 훈련만 3년 내내 했거든요.”

“아~”

권기옥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어쩌면 이상정이 이곳 수원에서 할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실 군 내부에서도 그를 내보내자는 의견이 많아서 권기옥 입장에선 그를 변호하기가 힘에 부쳤다. 그녀 입장에 서는 그는 한국 사람이고 또 몸이 아직은 성치 않았으며, 그래도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끝까지 이곳에 남겨두고 싶었다.



이상정

그녀는 참모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는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38식 소총은 당대 최고의 소총이라 불리는 마우저 소총을 참조해 만든 소총으로 마우저 소총보다 부품이 3개가 적은 5개로 이루어진 소총이죠. 그만큼 유지 관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특히, 모래 먼지가 많은 이곳 특성상 방진 처리가 된 38식은 최고의 소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은 단 몇 분 만에 38식 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정말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 이상정의 모습에 참모장은 무척이나 흠족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평위상 부대 주력 무기가 38식 소총이라네. 일본군이 제1차 세계 대전 때 칭다오(청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군을 상대로 싸운 무기가 바로 38식 소총이었지. 또 시베리아 출병 때 역시도 38식 소총을 사용했었지. 장갑을 끼고도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으니까. 그때 일본군이 버리고 간 38식 소총을 화는 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말이야. 항상 오발 사고 혹은 부품이 필요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베이징이나 난징(남경)에 수리하러 보내곤 했는데, 자네가 38식 소총에 정통하니까 무척이나 마음에 드네. 또 다른 무기들도 다룰 수 있다고 들었네만.”

“체코제 기관단총을 익숙하게 다룹니다.”

“하하하! 이직이라고 했나? 자네 아주 맘에 들어. 하하하!”

다음 날 이상정은 참모장의 막료가 되었다. 막료는 준장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위 직이었다. 일본 성성중학교 시절에 배운 군사훈련이 이토록 요긴하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

“제 꿈이요?”

이상정의 기습적인 질문에 권기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16살 때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국인 비행사가 곡예비행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소식은 경성으로 유학을 간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그 친구의 생생한 곡예비행에 대한 이야기는 16살 어린 소녀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그때부터 권기옥은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제 꿈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 왕이 사는 곳에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제 평생의 꿈이랍니다.”

“네?”

이상정은 그녀의 다소 과격한 꿈에 놀랐다. 그리고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옆에 좌석이 하나 있으면 저도 태우고 가시면 안 될까요?”

“네?”

이상정의 뜻밖의 말에 그녀는 얼굴이 상기된 채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얼마 뒤 권기옥과 이상정은 결혼을 했다.



이상정



## 이상정, 평위상 부대를 떠나

다음 해인 1927년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장개석) 총통은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난립하고 있던 군벌 세력들을 난징 정부로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평위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중국 북부에 있는 군벌들을 찾아가며 회담을 열었다. 향후 장제스 총통과 맞설 것인지 아니면 그의 북벌에 동참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상정과 권기옥은 평위상 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정세를 보면 평위상이 장제스 총통의 북벌에는 분명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서로 총



구를 겨눌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현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도와 주고 있는 건 난징(남경) 정부이니 그들과 적이 될 수는 없었다.

“정말 떠나는 건가?”

“네, 참모장님.”

참모장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상정을 떠나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는 무기 전문가이자 겨우 30명의 병력으로 일천 명이 넘는 지린의 마적단을 일시에 제압했으니, 전략에도 탁월한 성과를 내지 않았던가. 말리고 싶었지만, 이상정과 권기옥의 생각은 확고했다.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게.”

“감사합니다, 참모장님.”

이상정과 권기옥은 참모장과 뜨거운 악수를 했다. 얼마 후 권기옥은 난징 동로항 공사령부에 소속되어 북벌에 참여하여 10여 년 동안 중국 공군에서 복무했다.

1930년 3월 평위상을 비롯한 장제스 총통 반대파와 장제스 난징 정부군이 중원 대전이라 불리는 근대사상 최대의 전쟁을 벌였다. 양쪽 모두 합하여 총 150만 명의 대병력이 서로 중국의 패권을 놓고 싸웠지만, 결국 난징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1933년 7월 이상정은 아내인 권기옥이 항저우(항주) 항공으로 발령받자 난징에서 항저우로 이주했다. 마침 항저우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상정을 임시 의정원 경상도 의원으로 선출했으나,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열단 계열과 가까웠던 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다.

“형님!”

“하하하, 상화야.”

“몸은 괜찮으십니까?”

“보다시피 난 괜찮다. 그런데 조선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냐? 설마 너도 망명한 것이더냐?”

“형님이 항저우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조선에 파다합니다. 형님 안위가 걱정되어 이리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하하하! 그래, 그래.”



이상정

민족 시인 이상화가 형인 이상정을 찾아 항저우로 온 것은 1937년 3월이었다. 1936년 후반 이상정 부부를 시기하던 동포 한 명이 그들이 일제의 첩자라며 중국 관헌에 밀고하여 부부는 약 8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이 소문이 이상화에게까지 전해져 형을 염려한 이상화가 상하이(상해)를 거쳐 형을 찾아온 것이었다.

“다른 동포들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줘서 이리 풀려났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이들 형제와 권기옥은 3개월간 중국 곳곳을 다니며 오랜만에 형제의 우애를 다졌다. 이상화가 조선으로 돌아가자 일본은 이상화를 잡아 고문했고, 이상정이 쓴 원고도 빼앗았다.

## 한국 광복군의 탄생

1937년 7월 7일, 이른바 루저우차오 사건(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이상정과 권기옥 부부는 이듬해인 1938년 충칭(중경)으로 갔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류저우(유주)에 있을 때였다.

이상정은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여 육군참모학교 내 유격대 훈련학교 소장 교관으로 취임했고, 권기옥은 같은 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이상정은 중국군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도 활동을 병행했다.

“한국 광복군이요?”

“그렇소, 청남(이상정의 호). 우리도 이제는 군대를 가져야 할 때라고 믿소이다.”

“알겠습니다. 우선 국민당 정부와 교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중국과 소련(소비에트 연방)에 걸



쳐 있던 무장 독립 투쟁 세력들의 조직화와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군사·외교 활동이 절실할 때였다.

“우리 중국 입장은 한국 광복군의 창설을 지지합니다. 한국 광복군과 함께 일제에 맞서 싸우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은 백범 김구, 조소앙, 지청천 등과 함께 한국 광복군 창설을 위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은 돈이 문제였다. 궁핍한 살림살이를 겨우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게 있어서 한국 광복군 창설이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야기였다.

“참모장님!”

“하하하! 이 막료, 오랜만이네. 하하하!”

한국 광복군 창설 경비 문제로 충칭 곳곳을 뛰어다니던 이상정은 평위상 부대의 참모장을 만났다. 그는 평 장군이 장제스 군대에 패퇴한 뒤 장제스 휘하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정은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한국 광복군 창설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참모장님.”

“하하하, 고맙긴.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내가 고맙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는 한국 광복군 선언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 갔다. 충칭 가룽빈관에 모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은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우리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직할 국군, 한국 광복군을 보유하게 됐다는 벅찬 감동이 오로지 독립운동에만 매진했던 혁명가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었다.

한국 광복군 창설에 깊이 관여한 이상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중국 3대 화로담계 9월 중순임에도 충칭의 뜨거운 바람이 눈물로 축축해진 그의 눈가를

단숨에 달려 버렸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에는 지청천 장군을 임명했다.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후 300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게 됐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2월 10일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이상정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1941)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영·미·하·가·호(中·英·美·荷·加·濠)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삼가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東亞)를 재조(再造)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성명(聲明)한다.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1개 전투 단위가 되어 있으며,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선전(宣戰)한다.
2. 거듭 1910년의 합병 조약 및 일체(一切) 불평등 조약의 무효와 동시에 반침략 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 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驅逐)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血戰)한다.
4. 맹세코 일본의 난익(卵翼) 하에서 조성된 창춘(長春) 및 난징(南京) 정권(正權)을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스벨트·처칠 선언의 각 항(各項)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측(豫祝)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한국 광복군의 대일 선전 성명서를 계기로 1942년 5월에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행동 준승 9개 항을 당장 취소하고 중국 정부와 다시 교섭해야 합니다.”

의정원 의원에 선출된 직후인 1942년 10월 말에 개최된 제34회 의정원 회의에서 이상정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들을 비난했다. 1941년 11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는 한국 광복군이 항일 작전을 펼칠 때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9개 항의 조건을 내세웠다. 9개 항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락한다면 군수물자 등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실상 문제로 인해 9개 항을 받아들이고 지원을 받는 것을 택했다. 이상정은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행태를 비난한 것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지원을 안 해준다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줄 것은 또 주면 됩니다. 저는 행동 준승 9개 항을 취소하고 중국과 평등하게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중 간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중 연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44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다. 이상정은 당장 귀국하지 않고 상하이로 가서 한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네, 여보. 방금 전보를 받았어요.”

“아, 어머니!”

“내가 무엇을 하고자 이곳 중국에 남아 어머니의 임종도 못 보았는가. 이런 불효가 어디에 있소. 흑흑흑.”

“여보. 당신이 중국에 남았기에 중국인들에게 핍박받던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이상정과 권기옥은 서둘러 고국으로 귀국했다. 실로 중국으로 망명한 지 22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토록 조국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했던 그는 도착하자마자 얼마 뒤 뇌일혈로 쓰러져 52세에 별세하고 말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정 선생의 업적을 기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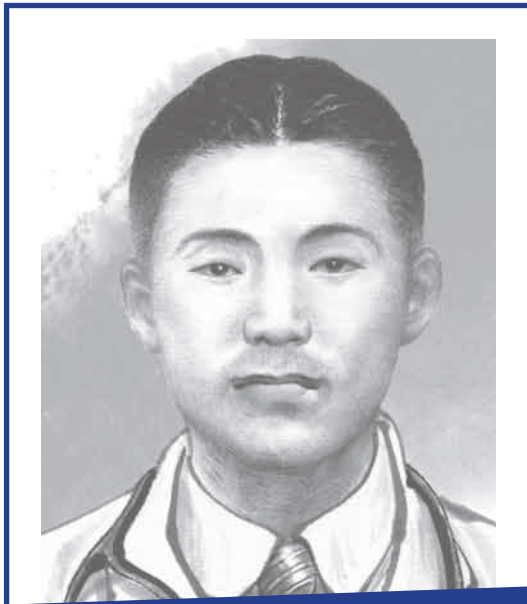


이상정

만리장천 떠나는 기선 소리  
잠든 나를 깨워 고향 가자네

# 이태준

1883. 11. 21. ~ 1921. 2. ?



2017년 2월, 이태준의 독립운동가

몽골의 슈바이처







## 지옥의 문턱에서

그곳은 말로만 듣던 지옥이었다.

곳곳에서 총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와 바닥에 흥건히 젖은 핏물 그리고 역한 피비린내까지, 이태준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준 군, 어서 부상병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세!”

“네? 네, 선생님!”

“형님, 소의문(현재 서소문)에 있는 대한 제국 군대의 부상병들을 병원으로 옮겼 습니다.”

“필순아, 그럼 승례문 쪽 부상병들을 어서!”

“네, 형님!”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이자 안창호와는 의형제 사이였다. 김필순이 데려온 사 람들과 안창호 그리고 이태준은 대한 제국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승례문 근처에서 부상병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 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1907년 7월 24일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으로 대한 제 국의 행정 각 부에 일본인이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한·일 신협약의 부수 비밀 각서 에 따라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7월 31일 군대 해산조치가 내려지고, 8월 1일 대한 제국군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위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자 이에 분개한 대한 제국의 군대는 승례문에서 소의문에 이르는 거리에서 일본군과 시가 전을 벌였다. 하지만 전력의 약화로 대한 제국군의 사상자가 점점 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필순과 안창호, 이태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아들들아, 대한의 아들들아, 여기서 죽으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안창호는 제복 사이로 핏물이 흘러내리는 부상병을 둘러업고 달리며 목 놓아 울었다. 대한 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대마저 해체되는 비극적인 현상이었다.

“중상을 입은 부상병들은 이쪽으로, 경상인 부상병들은 저쪽으로!”

세브란스 병원에는 부상병들과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들로 넘쳐났다. 안창호는 노련하게 사상자들을 분류하며 빠르게 수술과 치료를 받게 했다.

“아악!”

“옥!”

너무 많은 부상병들로 인해 수술실에는 마취제가 부족했다. 이에 김필순은 부상병의 생살을 찢으며 몸에 박힌 총알을 빼내었다. 이태준은 방금까지만 해도 곧 죽을 것만 같았던 부상병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자 김필순에게 무한한 경외감을 느꼈다. 김필순에 대한 경외감은 다시 이태준 자신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들게끔 만들었다.



이태준

## 의사로서 혁명가의 길을 시작하다

1883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고, 인근 기독교 교회를 다녔다. 아내가 죽자 어린 두 딸을 동생에게 맡기고는 한성으로 올라와 김필순과 동생이 운영했던 김형제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김형제상회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2층 다락방에는 안창호를 비롯한 이동휘, 이갑 등이 모여서 비밀결사 단체인 신민회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

1907년 10월 1일 이태준은 24살의 나이로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했다.

“이태준이라면 세브란스 의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닙니까?”

“그렇다네. 그를 청년학우회에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안창호 선생님의 추천이라면 환영이지요.”

“그럼 오늘부로 이태준을 가입시키세.”

“네, 선생님.”

안창호는 최남선에게 이태준을 추천해서 신민회 외곽 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시켰다. 청년학우회는 청년 계몽 활동을 주목적으로 실력 양성파 신학교 설립 등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국권 피탈 이후 105인 사건으로 회원 다수가 구속 수감되어 사실상 와해되었다.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더군.”



세브란스 의학교 졸업생 27(윗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태준 선생)  
[출처] 국가보훈처

“신해혁명이요?”

“그래. 쑨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혁명파가 10월 10일에 우창에서 봉기했다고 그러던데.”

“쑨원……. 신해혁명…….”

이태준은 김필순이 말한 혁명이란 단어에 가슴이 요동치고 온몸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1911년에 의학교를 졸업한 이태준은 병원에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지만 뭔가 가슴이 허전했다. 1년 전에 대한 제국이라는 나라 없어졌고 나라를 잃은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무렵에 중국에서 청 왕조에 반기를 드는 신해혁명이 일어난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의사로서 중국 혁명 운동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동참한다고? 자네가?”

“네,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 혁명 세력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마디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전폭적으로 도와 달라?”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한번 연구해 보자.”

혁명이란 단어가 이태준을 이리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또 공격적으로 변모하게 할 줄은 몰랐다. 혁명은 28살 젊은 청년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우리가 중국의 혁명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 경험은 후에 우리나라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다 녹았다 반복하던 한강이 12월 31일 두텁게 팡팡 얼어버렸다. 매서운 한파가 며칠째 경성에 몰아쳤다.

“김필순 선생은 어디에 있지?”

경성경찰서 계장인 노무라가 얼굴이 상기된 채 세브란스 병원 안으로 들어와 병

원 직원에게 격양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침에 신의주에 급한 산모가 난산을 겪고 있다는 전보가 와서 신의주 분원으로 급히 가셨습니다.”

“신의주에? 누구랑? 누구랑 갔냐고?”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길, 한발 늦었군.”

노무라는 급히 병원 밖으로 나갔다.

경성만큼이나 신의주도 추웠다. 저 멀리 중국 땅이 보였다. 이태준은 옷깃을 여미고는 얼마 전에 개통한 압록강 철교를 한참 바라보았다. 압록강 철교는 일제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1909년부터 1911년까지 3년에 걸쳐 설치한 철교로, 경성역에서 중국 창춘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김필순의 죽음

105인 사건은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평안도와 황해도의 반일적인 인사들과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6백 명의 애국지사들을 체포 고문하고, 그중 105인을 재판에 회부시킨 사건이다. 김필순 역시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미리 알게 되어 여동생과 함께 방금 이태준의 배웅을 받고 압록강 철교를 넘은 것이었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이태준 역시도 김필순이 남긴 일들을 처리하고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경성역에서 만난, 병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강 씨한테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다.

“선생님도 김 선생님과 함께 중국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병원 직원 대부분이 그리 알더라고요.”

강 씨는 자기가 죄를 지은 거 마냥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태준에게 말했다.

“아! 그리고 그제에 일본 형사가 찾아왔었습니다.”

“형사가요?”



이태준

“네. 저 선생님, 저는 그럼 이만 가던 길 가겠습니다.”

강 씨가 이태준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몸을 돌렸다.

“강 씨!”

“네, 선생님.”

“오늘 저를 못 본 거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 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제 갈 길을 재촉했다.

“안창호 선생님 별고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중국 난징에 와 있습니다. 여비도 떨어지고 또 중국어를 못해 너무나도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지인의 도움으로 기독교의원에 가까스로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필순 선생님께서 편지를 받으셨나요? 혹시 선생님의 주소를 아신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렌지 수확을 마치고 리버사이드 집으로 돌아온 안창호는 이태준의 편지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반가움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안창호 역시도 의형제였던 김필순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이태준에게 편지를 썼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의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았다.

김필순은 만주에서 병원을 열어 벌은 돈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또 일제의 압박으로 몽골로 피신했을 때는 안창호와 함께 그토록 꿈 꾸었던 이상촌 건설을 위해 매진했다. 하지만 일본 첩자로 의심되었던, 동료 일본인 의사가 건네준 독약이 든 우유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말에서 떨어져 애통하게도 1919년에 세상을 떠났다.

## 의사, 독립운동가로서의 이태준

1911년 12월 1일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청이 멸망하자 약 200년 동안 청의 속국이었던 몽골이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1915년 중국, 몽골, 러시아 간 3국 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고비사막의 모래바람은 듣던 대로 무시무시했다. 까마득하게 먼 지평선에 서부터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은 어느새인가 몽골 고륜(울란바토르)으로 향하던 이태준과 김규식, 훗날 비행사가 된 서알보 그리고 대한 제국의 군인이었던 유동렬이 탄 마차를 덮쳤다. 마부는 능숙하게 말들을 진정시키고는 모래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부는 다시 말에게 채찍을 가하며 달리기를 재촉했다.

1914년 가을, 이태준은 난징에 있다가 김규식의 권유로 고륜으로 갔다. 고륜 부근에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만주나 연해주보다는 일제의 간섭이 덜한 몽골 고륜이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곳이 야말로 무장 투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태준은 생각했다.

‘저 넓은 들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총과 칼로 무장한 채 말을 달리는 모습을 꿈꿔 본다. 아니, 꿈이 아니다. 군자금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현실로 만들어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여 직접 국내로 진공한다. 이것이 내 꿈이요 이천 만 동포의 꿈이다. 우리는 그 꿈을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 기필코!’

고륜에서 지낸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갔다. 하지만 국내 지하조직에서 약속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김규식은 매일매일 고비사막이 시작되는 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 있는 것이 일상화됐다. 김규식의 정성에도 하늘은 끝내 기적이란 선물을 주지 않았다. 서알보를 비롯한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의기투합했던 젊은 동지들이 실망감과 허탈함을 남긴 채 하나 둘씩 고륜을 떠났다.

“형님은 어찌할 겁니까?”

오늘도 고비사막에서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돌아온 김규식을 보며 이태준이 말했다.

“나? 난 …… 상하이로 돌아갈까 해.”

“상하이로요?”

“아우님은?”

“전 이곳 고륜에 남아 의원을 열까 합니다.”



이태준

“이곳에 의원은? 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군. 고료에는 현대 의술을 행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김규식이 고료를 떠나자 이태준은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뜻의 ‘동의의국(同義醫局)’을 열었다. 당시 몽골은 라마교의 영향으로 병에 걸리면 기도나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치료하고자 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더구나 몽골 사람들 70~80% 정도가 화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 몽골에 이태준은 현대적인 의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우선 화류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병이 문제가 아니라 라마교 승려나 무당이 문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에 이태준을 계속 헐뜯고 시기했다.

“고려에서 온 이태준은 사기꾼이에요. 그에게 속으면 양과 말 같은 우리의 소중한 가축들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문을 외우고 기도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우리의 공을 잊어선 안 됩니다.”

라마승과 무당들의 선동에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이태준은 병원에 오는 몽골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치료했다. 그런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몽골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태준을 받아들였다. 더구나 몽골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화류병이 이태준의 현대적인 치료법으로 낫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도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마자르라고 합니다. 헝가리 사람이고요.”

“반갑소. 난 이태준이요. 그리고 나라 잃은 국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불리지만, 실상은 오스트리아의 속국이지요. 일본이 대한 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것처럼 말이죠.”

몽골에서 이태준의 현대적인 의술이 널리 알려지자 그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몽골 국왕의 어의가 되고 또 왕족들을 전담하게 되자 이동 시간이 긴 몽골에선 항상 시간에 쫓겼다. 가끔은 차량을 이용하지만, 주로 마차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몽골 왕은 더 많은 백성을 치료해 달라는 뜻으

로 그에게 차량을 선물했다. 그 차량을 운전할 기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운전사로 뽑힌 사람이 바로 마자르라는 헝가리 청년이었다.

마자르는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의 독립을 위해 싸운 혁명가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몽골에 도착해 이태준의 도움을 받고 그의 전용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다. 더구나 그는 고성능 폭탄 제조가였다.

몽골에서 이태준의 인기는 국왕 다음일 정도로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그렇기에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태준은 의사로서 버는 돈을 대부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중국에서 몽골 그리고 러시아를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여비를 제공했다. 1919년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던 김규식에게도 2천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의 병원은 독립운동가들의 중간 연락지이자 군자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되었다.

이태준은 이른 아침부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그 무엇이 치밀어 올라왔다. 얼굴은 상기됐고 심장은 터질 듯했다. 예전 김필순이 죽어가던 대한 제국 군대의 부상병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김필순에게 혁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심한 감정을 몸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느꼈다. 바로 1917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봉기가 성공한 러시아 혁명 소식 때문이었다. 성공한 혁명의 물결은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퍼졌으며,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반혁명군인 백위군(백군)이 치열하게 내전을 벌였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마음 아파하던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들과 이태준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박은식조차도 러시아 혁명을 세계 개조의 첫 신호탄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러시아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족적·계급적 평등을 앞세운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또 일본과 양속 관계라는 것에 한껏 고무되었다.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은 우리를 외면했지만,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우리



이태준



의 독립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동휘, 김립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들은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을 창당했다. 이태준 역시도 한인사회당의 비밀당원으로 소비에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 폭탄 전문가, 마자르

‘과광~’

고륜 유일의 국제 호텔인 고륜 호텔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객실 하나가 폭파되었다. 객실 안에는 하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무관 2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몽골 경찰이 현장에 접근했을 때 매캐한 냄새와 함께 처참한 시체들이 보였다. 경찰은 테러로 단정하고 투숙객들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자네가 한 거라고?”

이태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조국을 대신해 오스트리아 놈들한테 복수했다며 말하는 마자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어제 고륜 호텔 앞을 지나가면서 나도 봤긴 했는데 말이야. 객실 부분 외에는 주변이 거의 폭발 영향을 받지 않았던데.”

“폭발물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요.”

“자네가 했으니까 주변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거지?”

이태준의 물음에 마자르는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하하하.”

“그건 그렇고 폭발물은 어디서 조달한 건가? 이 근처에서는 구할 수 없었을 텐데.”

“며칠 전에 체코 군단에 있는 친구한테 전보가 왔었습니다.”

“체코 군단?”

“네.”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던 고품질의 폭약과 뇌관 등을 헐값에 샀단 말이죠. 어차피 배에 있으면 습기 때문에 못 쓰게 될 테니까요.”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나도 폭탄을 사고 싶은데.”

“지금쯤이면 태평양 어디쯤 가고 있을 겁니다. 1차로 체코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태준은 마자르의 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무장 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였다.

“그런데 말이죠.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몇몇 한국인이 체코 군단이 머물고 있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는 자기들에게 무기를 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 정말인가? 그래서 팔았대?”

“무기대금으로 금반지나 금비녀 비단 같은 걸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 하하하. 잘됐군, 잘 됐어.”

북로군정서는 체코 군단과 소총 1,200정, 탄약 80만 발, 박격포 2문과 기관총 6정을 거래했다고 했다. 그 후 이들 무기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들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렸다.

폭탄을 살 순 없었지만, 말로만 듣던 마자르의 실력을 확인한 이태준은 마음이 꽤나 든든했다. 여차하면 마자르가 만든 고성능 폭탄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 ”

마지막 환자가 문밖으로 나가자 이태준은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오가는 환자를 상대하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낼 수 있으니 피곤해도 참을 만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힘든 일에 그도 지치기 시작했다.

“후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겠지.”

이태준은 일어나서 한껏 기지개를 켜다.

“이 동지!”

이태준은 소리가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같은 한인 사회당 당원인 김립이 서 있었다.

“김 동지! 언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곳으로 온 거요?”



이태준



김립은 그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줬다.

“치타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러시아 백위군(백군)인 운게른이 이곳 고륄을 침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들었소?”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몽골은 지금 자체 군 병력은 거의 없사피 합니다. 오롯이 중국군이 지켜주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군도 백위군(백군)이 침략하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 쉽게 철수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백위군(백군)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4만 루블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나머지 8만 루블을 베이징으로 옮기시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죠, 김 동지.”

반혁명주의자이자 백위군(백군) 사령관인 운게른은 치타에서 세력을 키워 오다가 혁명군에게 격파당하고는 그대로 몽골로 도망쳤다. 그리고 호시탐탐 고륄을 노렸다.

이태준과 김립은 8만 루블 상당의 금괴를 자동차에 싣고 고륄을 떠나 고비사막과 장가구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해 무사히 상하이로 보냈다.

## 이태준의 비극적 최후

의열단에 가입한 이태준은 베이징을 떠나 고륄으로 향했다. 장자커우(중국 허베이성 북서부에 있는 도시)에서는 마자르가 수십이 가득 찬 표정으로 이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왜 그리 표정이 좋지 않은가?”

“지금 고륄 상태가 안 좋아요.”

“왜? 백위군이라도 침략한 거야?”

마자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준은 순간 집 안에 숨겨둔 금괴가 생각났다.

“어서, 고룡으로 어서!”

이태준은 마자르를 재촉했다. 하지만 마자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고룡으로 가는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고룡까지 가는 도로가 모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폐쇄? 그럼 4만 루블은?”

이태준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보낼 4만 루블이 더 절박했다. 그 돈만 있다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무장 투쟁을 더욱더 강화 하리란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이곳에서 머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중국군의 반격으로 백위군이 고룡 부근으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태준은 서둘러 고룡으로 향했다. 고룡으로 가는 단 하나의 도로 곳곳에는 중국군이 검문소를 운영하며 신분증 검사를 했다.

장자커우에서 떠난 지 10시간 만에 고룡에 도착한 이태준과 마자르는 서둘러 금괴를 자동차에 옮기고 고룡을 떠나려는 순간, 저 멀리서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고룡 시내로 들어온 백위군은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했고 또한 약탈과 방화로 이어졌다. 고룡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마자르는 백위군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고룡 시내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마자르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건 바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자동차가 멈추자 마자르는 기름을 구해오겠다고 말했다.

“마자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네?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기름만 구해오면 당장 떠날 수 있죠.”

“이런 난리 통에 자동차 기름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저길 봐. 지금 백위군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지?”

이태준 말대로 백위군 군대가 이태준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사막뿐 어차피 숨을 곳도 없었다.

“잘 들어, 마자르. 자네는 꼭 살아야 하네. 알겠지?”

이태준은 그리 말하고는 안 들어가겠다는 마자르를 억지로 차 밑으로 들



이태준

어가게 했다.

얼마 후 말을 탄 백위군 병사들이 이태준에게 다가왔다. 이태준은 떨리는 손을 들고 그들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들은 자동차 이곳저곳을 살핀 후 이태준을 말에 태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마자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백위군에게 잡혀간 이후 이태준의 행적은 알 순 없지만 여러 문서를 종합해 본 결과 그는 1921년 백위군에게 총살당했을 것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당시 그의 나이 38세였다.

1921년 가을 여운형은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되는 원동 민족 혁명 단체 대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륜에 잠시 들러, 몽골 사람들의 성산인 고륜 남산 한복판에 있는 이태준의 묘를 참배했다고 했다. 이태준의 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준 묘소도 몽골의 개발 바람에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졌다.

몽골 정부는 이태준의 묘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도 못 찾았다. 이들은 2001년 7월 울란바토르에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을 만들어 몽골 국민에 대한 이태준의 헌신적인 의술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조지 루이스 쇼

(George Lewis Shaw)

1880. 1. 25.~1943. 11. 13.



2015년 4월, 이팔의 독립운동가  
국저과 인종을 초월한 자유애의 실천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져서 많은  
애국지사가 눈물을  
마금고 망명길에  
올랐지.



압록강을 건너  
일부는 민주로,  
일부는 러시아로,  
또 일부는  
상하이로 말야.



나 역시도 신의주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서 단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영국의  
관할지여서 그런대로  
마음이 놓였지.



그곳에서 이례를  
보내고는 조지 쇼가  
운영하는 계림호를  
타고 단둥을 떠나  
상하이로  
갔다네.

당시 독립운동을  
했다든 사람들은  
모두 이통양행 배를 타고  
망명길에 올랐지.



멀리서나마 우리 땅  
우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발 소리와 함께  
배를 멈추라는 소리가  
들렸다네.



계림호는 당장 멈춰라!  
이곳은 대일본제국이  
관할하는 경비구역이다!  
당장 멈춰라!



하지만 계림호 선장이 영국인이었어. 그 선장이 말이지,  
일본 순사선의 정지 명령에 콧방귀도 안 뀌고  
경비구역을 빠르게 내달렸지.



나홀 뒤에 난 15명의 동지들과 함께 상하이 항포 선창에  
무사히 내렸는데, 이 모든 게 다 조지 루이스 쇼의  
덕분이지.

우린 그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네.



## 일본 상인들한테 눈엣가시가 된 쇼

“또 일본 녀석들이 장난질을 쳤다고?”

“그렇습니다. 사장님.”

“태생은 못 속인다고 하더니.”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저놈들이 죽나 내가 죽나 사생결단해야지. 이번에도 밀리면 우린 모두 압록강에 빠져 죽어야 해.”

사내가 사장이라 불렀던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벌떡 일어나 해가 지고 있는 압록강을 바라보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눈엔 파란 눈동자 실핏줄이 터지며 빨갱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압록강도 붉은 노을 빛으로 물들어갔다.

## 조지 루이스 쇼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었던 쇼는 중국 안동(단둥)에서 무역회사와 기선회사인 이룡양행을 경영하고 있었다. 특히, 쇼를 비롯한 영국인들은 상하이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해 중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인들은 쇼를 비롯한 영국인들을 중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골몰하고 있었고, 실제로 몇몇 영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중국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쇼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관할지인 대련에서부터 점차 북상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었는데, 그 한계 충돌 지점이 쇼가 있는 안동(단둥)이었다. 안동만 차지하면 만주 일대의 화물 운송을 독점할 수 있기에 쇼를 내쫓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만주 지역에서 나오는 화물은 대부분 안동(단둥)으로 모이게 된다. 그런 다음 목적지인 상하이나 정저우, 항저우 그리고 멀리는 홍콩까지 중국 곳곳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때 화물을 운송하는 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지  
루이스  
쇼



건 화물을 배에 선적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창고였다. 쇼는 안동 일대에 10여 개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중국인 소유의 창고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 상인들은 이 빈틈을 노렸다. 쇼가 매년 재계약하던 중국인들의 창고를 쇼보다 훨씬 비싼 값에 임대를 해버린 것이다. 일본인들의 수차례 방해로 적잖게 손해를 보던 쇼는 이번만큼은 물러나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좋아, 좋아. 이번엔 제대로 싸워주지.”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나?”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유럽이라면 왕 대인이 경영하고 있는 곳 아닌가? 후후후, 이것 참 생각보단 일찍 일본 녀석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겠군.”

그 시각 안동 중심지에 있는 최고급 요릿집인 유럽에선 안동 창고의 70% 이상을 확보한 일본인들이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요시다 상.”

도쿄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온 요시다는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 관계인 일본 상인들을 보며 자신 있게 말했다.

“앞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만 창고를 우리가 옮겨주고 있으면 쇼는 분명 백기를 들 겁니다.”

“암요. 암요.”

모두 그의 말을 동조하는 가운데 맨 구석에 있던 일본인 상인 한 명이 불안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시다 상, 요시다 상만 믿고 중국인들의 창고를 시세의 다섯 배를 주고 임대했는데 만약 쇼가 백기를 들지 않는다면 우린 파산입니다, 파산.”

파산이라는 말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 안동(단동)과 대련 그리고 선양을 잇는 삼각 벨트만 완성되면 중국 만주 일대의 모든 화물을 우리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이익은 상상조차 못 할 겁니다.”

“그런 장밋빛 미래는 쇼를 꺾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하하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쇼가 처리하고 있던 화물들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으니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삼각 벨트는 모두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요시다의 장담에 모두 불안함을 떨쳐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마저 남은 불안감을 지우지는 못했다.

깁~끼익~.

경찰차 2대가 유립 앞에 멈췄다. 1908년식 포드 T 차를 개조한 경찰차였다. 그리고서 안동(단동) 경시청 경찰들이 유립에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1층에 있던 왕 대인을 체포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선 일본인 상인들이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일본인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향해 권총을 들이던 경찰들을 쳐다보았다. 만약 이들이 체포영장을 읽어주지 않았으면 경찰로 변장한 마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당신들을 아편 밀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 무슨 소리요? 아편이라니? 우린 그런 거 모르요.”

“왕 대인, 어서 경찰들에게 설명해주시오.”

왕 대인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모두 끌고 가!”

“자, 잠깐만 우린 영국과 동맹국인 일본인이요. 이걸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단



조지 루이스 쇼



말이오.”

요시다는 경찰이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것에 저항하며 말했다.

“아편 밀매라면 동맹국의 어느 시민이라도 체포하는 걸 주저할 수는 없다.”

12월의 안동(단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다. 아열대성 기후인 복주(푸저우)에서 태어난 쇼에겐 살을 에는 듯한 강바람이 부는 이런 추위는 정말 참기 어려웠다. 만약 사업만 아니었다면 분명 여기보다는 따뜻한 상하이에 있었으리라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떠올렸다.

“끌려 나옵니다, 사장님.”

직원 말대로 4명의 일본인이 왕 대인과 함께 유럽에서 끌려 나왔다. 이내 경찰차에 모두 태워지곤 빠르게 빠져나갔다.

면발치에서 이들을 바라보던 쇼는 하얀 입김을 연신 내뿜고 있던 사내를 보며 말했다.

“내일은 오후에 출근해. 창고 주인들이 새벽부터 들이닥칠 테니.”

“창고 주인들이요?”

“그래. 지금쯤이면 안동(단둥) 시내에 소문이 퍼졌을 거고, 창고 주인들은 안절부절못하고 있겠지.”

“그럼?”

“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교훈이 필요할 때지. 누구든 나를 배신하면 패가망신에 가까운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 말이야.”

“.....”

“내일 오후에 보자.”

쇼는 이 말을 남기고는 뒤돌아 길을 걸었다.

‘무서운 사람이야, 쇼 사장은. 왕 대인이 누구야? 쇼 사장과 호형호제하면서 친혈육보다도 더 친한 사이였잖아. 그런데 그런 그를 아편 밀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어. 결과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 일본인들을 한 방에 깨끗이 청소해버렸지. 쇼 사장은 정말 대단해.’

사내는 강바람이 매서운 탓인지 몸을 더욱더 움츠리며 발을 재촉했다.

안동(단둥)의 동이 터 오를 무렵 검은 가죽 재킷에 중절모를 쓴 2명의 남자가 안



동 시내의 거리를 유심히 지켜보며 걷고 있었다. 그들의 눈매는 마치 하늘에서 먹이를 찾는 매의 눈처럼 꽤 날카로웠고 또 신중해 보였다. 그들의 걸음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이 틀 무렵 이어서 그런지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해 보였다. 그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이 보이지 않았는지 연신 화를 내며 보이는 것을 닦치는 대로 발로 걷어찼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찾는 그 무언가를 찾기 전까진 이곳을 계속 수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았다. 이때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마차와 인력거가 멈추며 중국인들이 우르르 내렸다. 갑작스러운 중국인들의 출현에 적지 않게 놀란 두 남자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보는 눈이 많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쇼 사장?”

“쇼 사장, 나요. 나 문 좀 열어주세요.”

“우 대인, 새치기하지 마시오.”

“내가 언제 새치기했던 거요. 난 내 줄을 섰을 뿐이라고.”

이룡양행 밖엔 어제저녁 일본인 상인들이 체포됐다는 소문을 듣고 온 중국인 창고 주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룡양행이 소화할 수 있는 창고는 한정되었기에 일본 상인들과의 계약이 거의 파기된 이상, 쇼와 계약을 못한다면 창고를 놀릴 판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창고 주인들은 회사 문을 두들겼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쇼 사장님?”

“쇼 사장님?”

12월의 안동은 매우 추웠지만, 동이 트자 그나마 부드러운 햇살로 차가움이 많이 중화됐다. 햇살 한줄기가 검은 암막으로 드리워진 2층 이룡양행 건물 창가에 부딪쳤다.

“아합.”

하얀 가운을 입고 하품을 연신 해대는 영국인 의사이자 쇼의 오랜 친구인 스미스가 흥차를 마시고 있는 쇼에게 다가갔다.

“자네의 이타심으로 꺼져 가던 소중한 생명이 새 삶을 얻었네. 피는 많이 흘렸는데 치명적이진 않고 총알 역시도 빠냈고 ……”

“고생했어. 홍차 한 잔 줄까?”

“이거 ……”

스미스는 홍차를 타주기 위해 일어나던 쇼에게 피로 물든 형짚을 건네주었다.

“자네가 문 앞에서 데려온 저 환자 품속에 있던 건데 꽤 소중히 다루는 것 같더라고.”

쇼는 피로 물든 형짚을 펼쳐보았다. 낫선 문양이 그려진 형짚이었다.

“가문의 문장 같은 건가?”

스미스가 말했다.

“아니, 이건 조선의 국기야.”

“국기? 그럼 유니언 잭 같은?”

“그래. 전에 조선…… 아니 대한 제국에서 내가 일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

“어? 어. 그래. 금광에서 일했다고 했었지, 아마.”

“아버지 대신해서 1902년에 은산금광에서 회계 책임자로 있었을 때 그곳 조선인 관리자 집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

쇼는 형짚을 움켜쥐고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환자를 보며 말했다.

“태극기.”

3일 만에 깨어난 남자는 자신을 윤학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에서 돈을 모금해 만주에 있는 신흥강습소에 전달하려다가 일제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렸고 조선으로 다시 압송되려는 순간에 겨우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그 몸으로 가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넨 염증 때문에 죽을 걸세.”

“어차피 전 조국에 제 운명을 맡겼습니다. 제가 죽는 것도 조국의 뜻이고 또 살아서 도착해도 조국의 뜻입니다.”

윤학수의 결기에 쇼는 제안을 했다.

“그럼 그 돈은 우리가 전달해 줄 터이니, 학수 자넨 여기에서 몸을 추스르며 일하는 건 어떤가?”

“쇼 사장님. 제 이름은 윤학수이고 나이는 22세 그리고 조선에서 왔다는 것 이외엔 절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제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조지 루이스 쇼

쇼는 윤학수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전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지요. 이런 절 살려주신 은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윤학수는 총상을 입은 옆구리를 만지며 일어났다.

“자네가 말한 나라 잃은 백성. 자네가 나라 잃은 백성이어서 도와준 거라네.”  
“네?”

“난 영국인이지만, 영국인 이전에 아일랜드 사람이지. 물론 내가 태어난 곳은 이곳 중국이고 말이야. 사업으로 아버지를 따라 아일랜드에 갔을 때를 잊지 못하네.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아일랜드에서 영국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내 조국을 보니 피눈물이 났지. 밖에선 영국인이었지만, 안에서 나 역시도 나라 잃은 백성이었다네. 자넨 보니 스무 살 그때 내 모습이 생각나는군.”

윤학수는 쇼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비록 인종이 틀리고 나라도 틀리지만,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속일 수가 없었다. 윤학수는 돈을 쇼에게 맡기고 몸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얼마 후 중국인 직원이 신흥강습소에 돈을 전달해 주었다.

쇼와 윤학수는 틈나는 대로 아일랜드와 조선의 역사를 공부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기에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공부가 됐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로운 독립만세운동에 일제는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많은 애국지사가 죽거나 다쳤고 또 투옥됐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됐다.

## 4월 안동(단동) 모처

백범 김구를 비롯한 15명의 애국지사가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구와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며칠 전에 압록강을 건너 안동(단동) 모처에 은신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하이로 가기 위해 배편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이때 중국인 복장을 한 사내가 들어왔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쏠렸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들, 안동에서 상하이로 배편이 마련됐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김 군.”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룡양행 윤학수라는 자와 접촉해서 회사 소유의 계립호를 타고 상하이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이룡양행 사장인 쇼라는 자의 처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도 일본인이고요.”

사실 그랬다. 쇼의 어머니는 엘렌 오씨(Ellen Oh'sea)였고 그의 아내는 사이토 후미였고 그의 둘째 아들인 루이스 쇼도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쇼 일가는 3대에 걸쳐 일본 여성과 결혼한 어찌 보면 꽤 친일적인 인사였으리라 생각됐지만, 그는 부인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지지해 준 사람이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윤학수가 자신과 교섭한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김구를 비롯한 애국지사들을 보며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충상과 태극기, 신흥강습소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우린 윤 동지를 믿소.”

김구의 한마디면 충분했다. 윤학수의 안내로 이들은 모두 무사히 계립호를 타고 상하이로 망명했다.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내무총장 도산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는 상하이와 국내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답은 연통제와 교통사무국이었다. 연통제는 오늘날의 시와 도 그리고 군 같은 지방 행정조직이었고, 교통사무국은 이런 지방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밀 통신기관이었다.

“교통사무국?”

“네, 사장님. 우리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이곳 이룡양행 2층에 교통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교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 ……”

“사장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자금 모집과 정보 수집, 정부의 공식 서류와 지령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교통 편익을 봐주는 거점이



조지  
루이스  
쇼

될 수 있습니다.”

쇼는 아무 말도 없었다. 윤학수는 쇼가 거절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

쇼 입에서 나온 전혀 뜻밖의 말이 들렸다. 윤학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쇼를 보며 되물었다.

“설치해도 된다고요?”

“그렇다니까.”

“하지만 이 일은 사장님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하하, 미스터 윤. 그래, 그래. 난 자네 말대로 장사꾼이야. 이익을 위해 서라면 지옥에라도 가서 취할 수 있지. 하지만 말이야.”

호탕하게 웃던 쇼는 정색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 아일랜드의 독립을 기원하네. 자네 나라의 독립 역시도 기원하네. 이것으로 내 대답은 충분하겠지?”

쇼가 죽음에 내몰린 윤학수를 외면하지 못한 것은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도와주기로 결정한 건 의외였다. 이번 결정은 장래에 어찌면 자기에게 크나큰 해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윤학수는 추측건대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동질감과 함께 뺨속까지 일본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룡양행 2층에 교통사무국을 설치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상하이 임시 정부와 연통제 교통사무국을 오가던 비밀 공작원들을 특파원이라고 했다. 특파원이 국내외를 오가며 많은 애국지사를 이룡양행을 통해 상하이로 망명시키자 일제는 쇼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 일제에 의해 구속되는 쇼

“쇼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경무국장님, 지금이야말로 그를 잡아들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쇼를 주시하던 일본 영사관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리에 영사는 급히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한테 전화를 걸어 쇼가 신의주로 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쇼는 일본 친정에서 오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서둘러 신의주로 가는 도중이었다. 윤학수와 중국인 직원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쇼는 일본이 영국인을 체포할 순 없다고 말하고는 그들의 염려를 뒤로하고 떠난 길이었다. 하지만 눈엣가시였던 쇼가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일제는 쇼를 체포해 신의주경찰서에 수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날 수감하는 것이요? 난 영국인으로 당신들에게 체포될 어떠한 이유도 없소.”

“시끄럽다. 조선 총독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다.”

쇼가 체포되자 조선 총독부도 바빠졌다.

“불령선인인 그를 당장 경성으로 압송해 구속해야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를 구속할 겁니까?”

“지금 불령선인들이 상하이에 정부랍시고 만들어 그것으로 인해 국내에선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짓밟지 못하면 동요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총독님은 본국에 난처해질 겁니다.”

“본국 외무차관께서…….”

사이토 총독이 나서며 말을 이었다.

“주일 영국 대사를 접견하셨는데 체포 이유를 물어보셨다고 한다. 그 이유를 영국 정부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면 영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총독님, 제가 기필코 놈의 죄상을 낱알이 밝혀내겠습니다.”

며칠 후 쇼는 신의주에서 경성으로 압송돼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쇼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쇼가 내란죄로 기소되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은 격양했다.

“쇼 씨의 구속을 시작으로 일본인들이 중국에 있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

---

**불령선인** 일제 강점기에,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

를 내쫓을 게 뻔합니다.”

“각국 정부에서 이를 대처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한 돈들을 모조리 날릴 겁니다.”

각국 특파원들은 앞다투어 쇼 사건을 본국에 기사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20년 8월 15일 영국의 일간지 <런던 타임스>에도 기사화되어 영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일본에 쇼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그를 석방하면 안동으로 돌아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더욱더 힘을 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다. 특히, 영·일동맹으로 한반도를 지배할 권한을 인정받고 있었던 일본으로선 영국의 쇼 석방 요구를 외면하지는 못했다. 결국 쇼는 11월 19일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보석 형식으로 풀려나 안동으로 돌아갔다.

“사장님!”

“쇼 사장님!”

안동(단동)으로 돌아온 쇼는 직원들과 거류민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쇼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구속으로 잠시 멈췄던 교통사무국을 열어 직간접적으로 독립 투사들을 지원해 주었다.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북부를 점령해 다음 해에 만주국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쇼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반값이라니? 그럼 기름값도 안 나올 텐데.”

쇼는 윤학수의 보고를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본 녀석들이 대안기선공사를 세우는 건 우리 회사를 도산시키겠다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조지 루이스 쇼



남는 녀석들입니다.”

“운송 운임을 반값으로 낮추면 화물들은 모두 저쪽으로 넘어갈 게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일제는 이룡양행을 파산하게 할 목적으로 대안기선공사를 설립했다. 이 운송회사는 오로지 쇼 회사의 파멸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화물 운송 운임을 파격적으로 낮추어 이룡양행을 압박해 나갔다. 쇼는 영국 영사관에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우리도 운임을 반값으로 낮춘다. 또 우리에게 화물을 맡기는 화주들한테 경품도 준다고 선전해.”

“네, 사장님.”

이룡양행의 강한 공격에 대안기선공사는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그들의 뒤엔 일제와 만주국이 버티고 있었다. 결국 쇼는 안동(단동)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다.

더구나 중·일전쟁의 발발로 안동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1938년 안동(단동)에서 북주(푸저우)로 본거지를 옮겼다. 그곳에서 석유 판매 등 사업을 벌였으나, 불안한 정세로 인해 그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43년 11월 13일 쇼는 63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제 할아버지가 잘못된 것에 맞서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쁩니다.”

1963년 3월 1일 우리 정부는 쇼에게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한 지 49년 만인 2012년 광복절에 쇼의 친손녀인 마조리 허칭스와 그녀의 딸인 외증손녀 레이첼 새시에게 훈장을 대신 수여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지 루이스 쇼를 2015년 4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그분의 공훈을 기리고 있다.

# 마거릿 히긴스

(Maguerite Higgins)

1920. 9. 3. ~ 1966. 1. 3.



2016년 5월, 이딸의 6.25 전쟁 호국영웅  
귀신 잡는 해병을 전 세계에 알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한 국군은 낙동강에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맥아더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로 했다.



인천만 함락하면 서울 탈환은 시간문제다.

다구나 남쪽에 있는 적들의 보급선을 완전 차단하면 적들은 독안에 든 쥐다.

마침내 그날, 팔미도에서 등대 빛이 비추자 맥아더는 261척의 함선과 7만5천 명의 상륙군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나누어 상륙 작전을 펼쳤다. 1차로 새벽에 제5해병연대가 녹색 해안에, 2차로 오후에 제1해병연대가 청색 해안에 상륙했다.



그리고 9월 15일 오후 5시 33분에 미 제5해병연대가 3차로 적색 해안에 상륙을 감행했다.



하하하. 긴장들 하지 말아요.



모두 웃어요. 웃어.

그녀는 여성 최초로 플리처상을 받은 마거릿 히긴스 중군기자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무전발해 점령할 때 중군기자로 있었는데.



땀뺀다는 흥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요. 그러니 너무 긴장 말아요.

무사히 적색 해안에 상륙한 히긴스는 미 해병들을 따라 전선으로 향했다.



휴- 여기가 인천인가?



히긴스는 신문기사에 이날을 이렇게 적었다. 짐승 함포사격과 공중 폭격이 계속되었지만 북한군은 해안 곳곳에서 우리를 괴롭혔다.



## 6·25 전쟁의 종군기자로



마거릿  
히긴스

“어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봐 주세요, 지국장님,  
“지국장님?”

일본 도쿄에 지국이 있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 지가 세 들어 있던 5층 건물이 마거릿 히긴스 도쿄 특파원의 목소리로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지국장인 스미스는 여성인 매기(마거릿 히긴스의 애칭)를 6·25 전쟁에 종군기자로 보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물론 그녀가 제2차 세계 대전 때 종군기자로 활약한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이틀 만에 최전선으로 보내 달라는 매기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다.

“매기, 매기 생각은 잘 알고 있지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질 않았잖아. 일단 한국의 전황을 살펴본 다음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지국장님!”

히긴스는 두 손바닥으로 지국장의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전황을 따졌죠? 설마 기자 정신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말이야.”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곤 다른 신문사에 입사해 6·25 전쟁에서 특종을 펴평 터트려 날 버린 신문사를 영원히 저주할 거예요.”

“우리가 어, 언제 버렸다고 그러나? 알겠네. 알겠어. 본사에 보고하고 비행기 편을 알아봐주겠네.”

“진작 그러실 일이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알아봐주세요. 전 숙소에 가서 짐을 싸고 있을 테니까요.”

히긴스는 이 말을 남기곤 숙소가 있는 건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

종군기자 전쟁터에 직접 나가 전선이나 군의 상황을 보도하는 기자

“허 참.”

스미스 지국장은 황당한 표정을 짓다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정말 못 말린다니깐, 매기는.”

마거릿 히긴스는 아일랜드계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1920년 9월 홍콩에서 태어났다. 6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했다. 1944년 히긴스는 런던 지국으로 발령받았고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이 독일 부헨발트를 함락했을 때 첫 중군기자로 나섰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베를린 지국장으로 있다가 이곳 일본 도쿄로 6월 21일에 부임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지 4일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부웅~.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가볍게 발진한 미국 수송기는 창공을 날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한반도를 횡단해 김포비행장 근처에 착륙했다. 히긴스는 조심스럽게 김포비행장에 첫발을 디뎠다.

“어서 오세요, 히긴스 기자. 히긴스 기자가 6·25 전쟁에 첫 번째로 도착한 기자입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언론공보 담당 장교가 말했다. 첫 번째 한국에 도착한 기자라는 그의 말에 히긴스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중군기자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의 설렘. 하지만 그녀는 그녀 앞에 설렘 대신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었다. 독일에서 중군기자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설렘이란 낭만적인 단어를 김포비행장에 버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피란민이 보였다. 많은 여성이 자신보다도 더 큰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를 등에 업고는 위태위태하게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길을 재촉했다.

6월 27일 저녁에 서울에 들어온 히긴스는 북쪽에서 간간이 포성이 들리자 전쟁터에 왔음을 실감했다.

“일단 기사를 뉴욕 본사에 보낼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마거릿  
히긴스

어디로 가야 하지?”

히긴스는 **중앙청**에 들러 통신 수단을 살펴보고곤 우선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6월 28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히긴스는 무거운 사진기를 내려놓고 잠시 쉬려는 순간 언론공보 담당 장교가 그녀 숙소에 다급하게 들어왔다.

“히긴스 기자, 어서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왜요?”

“지금 미아리 쪽으로 적 탱크 3대가 진입했다는 급보입니다.”

“미아리요? 그럼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한강 인도교를 건너 수원으로 가세요. 그럼 안전할 겁니다.”

히긴스는 카메라를 챙긴 후 서둘러 중앙청을 빠져나왔다. 언론공보 담당 장교가 소개해 준 안내인과 함께 히긴스는 한강 인도교로 달려갔다. 하지만 인도교 초입부터 차량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제각기 먼저 다리를 건너려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뒤섞여 혼란이 극에 달했다.

“철교 쪽으로 가 볼까요? 안내인이 철교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철교요?”

잠시 생각한 히긴스가 안내인에게 말했다.

“그냥 이곳에서 차레를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철교 쪽도 이곳과 마찬가지로 지일 것 같네요.”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히긴스와 안내원 역시도 사람들에게 의해 떠밀려 가만히 서 있어도 인도교 쪽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인도교를 1/5쯤 건넌을 때 다리 초입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히긴스 씨”

“히긴스 씨 잠시만요. 거기서 멈추세요.”

**중앙청**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던 정부청사 건물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건물로 사용된 건물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군정청으로 사용되면서 처음으로 중앙청이라 불림.

**인산인해**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인 것을 산이나 바다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히긴스가 뒤를 돌아보았다. 언론공보 담당 장교가 인파를 헤치면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밤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엔 당혹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네?”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릴 테니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히긴스와 안내원은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다리를 빠져나가는 건 녹녹지 않았다. 많은 피란민으로 인해 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다리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힘이 들었다.

헉헉~헉헉.

“겨우 빠져나왔네.”

가쁜 숨을 내쉬고 있던 히긴스에게 언론공보 담당은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망원경은 왜요?”

“다리 쪽을 보세요.”

그가 건네준 망원경으로 인도교를 바라보았다. 아까보다도 더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지만 특이한 점은 보이질 않았다.

28일 새벽 2시 30분

히긴스는 망원경을 눈에서 떼고 언론공보 담당 장교한테 망원경을 건네려는 순간 인도교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파~팡~팡~팡~.

그리곤 시뻘건 화염이 인도교를 감쌌다. 망원경을 잡은 히긴스의 두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이, 이럴 수가!”

“인도교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히긴스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일찍이 독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인도교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기를 따라서 사람들의 비명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마거릿  
히긴스

한강 인도교와 철교가 예고 없이 폭파되었다.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교량 폭파는 북한군 탱크 3대가 서울로 들어온 시점에 일어났다. 인도교 폭파로 서울 시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사실 전황으로 볼 땐 최소한 6~8시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조기 폭파로 인해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폭파시킬 줄 알았다면 저들에게도 알려줬어야죠. 그랬으면 많은 사람이 죽진 않았을 거잖아요.”

히긴스는 그에게 원망에 섞인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폭파 작전은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저도 폭파되기 한 시간쯤 전에 알았고요.”

“그렇지만…….”

히긴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차피 여긴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아닌가. 이 역시도 독일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쉽게 무너졌으리라 생각하곤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젠 어찌죠?”

“제가 나룻배를 구해볼 테니 그 배를 타고 한강 이남으로 가세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는 존 무초 미국 대사와 존 처치 준장이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존 처치 준장은 수원에서 정찰 활동을 하다가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한테 전문을 보냈다.

“38도선을 회복하려면 미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히긴스가 언론공보 담당 장교가 알선해 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피란민 행렬에 섞여 수원으로 향하고 있을 때 수도 서울은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은 지 불과 3일 만에 함락됐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이 창설된 지 처음으로 유엔군의 한국 파병이 결정됐다.

## 히긴스, 맥아더를 만나다

한편, 맥아더 사령관은 처치 장군이 보낸 전문을 받아 본 후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인 C-54기(바탄호)를 타고 한반도로 향했다. 1950년 6월 29일 오전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진행했다. 이때 히긴스도 수원 비행장에 있었다. 그녀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만나 전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령관께서 이곳 수원에 오심으로써 한국군이나 한국민에게 큰 용기를 줬을 겁니다.”

“그런가?”

“그럼요. 미국은 한국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일 테니까요.”

“음. 그것 역시도 좋은 일이군. 히긴스라고 했던가?”

“〈뉴욕 헤럴드 트리뷴〉 종군기자 마저릿 히긴스입니다, 사령관님.”

“자네, 나랑 도쿄로 갈 텐가? 여기서 기사 쓰는 것도 뉴욕에 보내는 것도 어려울 테니 말일세.”

“영광입니다.”

히긴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맥아더가 누군가? 미 극동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 아닌던가. 더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무조건 특종이 예약된 고급 정보인 셈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정확했다. 6·25 전쟁에서의 전황을 바꿀 만한 이야기를 맥아더에게 들은 것이다.

“도쿄로 가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군 2개 사단 파병을 요청할 걸세.”

“2개 사단이면 충분할까요? 북한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하하하, 우리 미군이 한국에 도착하면 적들은 지레 겁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에 바쁘지 않겠는가? 2개 사단이면 한국을 지킬 수 있다네.”

도쿄에 도착한 히긴스는 도쿄지국에서 기사를 작성해 뉴욕에 보냈다. 〈트리뷴〉지는 연일 히긴스의 기사를 받아 1면과 2면에 특종기사를 게재했다. 히긴스의 생생

한 기사로 미국민들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벌써 가게?”

스미스 지국장은 군용 셔츠와 범포 바지를 입은 히긴스를 보며 말을 이었다.

“좀 더 쉬고 가지그래?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본사에서 호머도 6·25 전쟁에 투입한다면서요?”

“호머? 호머 비거트. 아마도 그럴걸.”

“그 친구한테 제 자리를 줄 순 없죠. 지국장님, 저 갈게요.”

히긴스는 서둘러서 지국을 빠져나와 맥아더가 알선해준 군용기를 타고 다시 수원으로 향했다. 호머 비거트 기자 역시도 히긴스만큼 유능한 중군 기자였다. 그들은 <트리뷴> 지 일면에 자신들의 기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취재 전쟁을 벌였다. 훗날 여러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거릿과 호머가 없었다면 6·25 전쟁 보도도 시시해졌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들의 라이벌 의식은 보는 기자들에겐 꽤 큰 관심거리였다.



마거릿  
히긴스

## 일본으로 추방된 히긴스

1950년 7월 1일 일본에서 미 지상군인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미군이 도착하자 북한군은 꽤 충격을 받았다. 생각보다 빠르게 미군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과 만났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미군 최초로 파병된 스미스 특수 부대가 치른 첫 번째 전투였다.

그날 새벽 스미스 부대는 죽미령에 진지를 구축했지만, 급조된 부대인 탓에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다. 아침 7시경 북한군의 T-34 탱크 33대가 굉음을 내면서 죽미령을 넘어오고 있었다. 이에 미군은 무반동 총과 바주카포로 대응했지만, 탱크를 격파하는 건 불가능했다. 소련이 지원해준 T-34 탱크를 대응하기엔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는 어렵었다. 오후 2시 30분 스미스 부대는 죽미



령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전투에서 스미스 부대는 540명 중 150여 명이 전사했다. 이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히긴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한국군과 미군 역시도 죽미령 패배에 충격을 받았다. 히긴스는 본사에 이렇게 보냈다.

“미군은 첫 번째 교전에서 패배했다.”

오산 죽미령에서 패배한 미군은 국군과 함께 퇴각했다. 오산에서 천안으로 그리고 대전까지 반격도 하지 못한 채 후퇴를 거듭했다.

“히긴스 기사를 한국에서 추방해, 당장!”

미8군 위커 장군은 부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다. 죽미령 전투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분 없이 기사를 내쫓으면 본국은 물론이고 이곳 중군기자들한테 언론 탄압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장군님.”

“명분?”

“명분이야 만들면 되질 않나? 이리 말하게. 전선에는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것이 없으므로 여성 기자는 중군기자를 할 수 없다.”

위커 장군의 명령에 따라 히긴스는 강제로 일본으로 추방됐다.

도쿄의 여름은 지독히 습하고 무더웠다.

“휴~. 이놈의 습기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네.”

스미스 지국장장은 연신 부채질하면서 말했다. 도쿄의 여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웠다.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이 우리 기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위커 장군한테 항의서 한 번 보내지도 않고 어째서 꿀 먹

은 병어리들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도 할 만큼은 했는데 워커 장군이 너무 완강해서 말이지.”

“그러게 좀 미군이 좋아할 만한 기사도 송고하고 그러지 그랬어. 이번 죽미령 전투는 히긴스 기사가 아주 잘 썼지만, 아무래도 미군의 사기엔 영향이 안 갈 순 없었겠지.”

“지국장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기자의 사명을요?”

히긴스는 적당히 타협하라는 스미스 지국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현실에 타협하느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

“어디 가려고?”

스미스 지국장은 씩씩거리면서 문을 나서는 히긴스를 보고 말했다.

“맥아더 장군을 만나야겠어요.”

“바쁜 양반이 히긴스 기사를 만나주겠어?”

“뒤편도 해봐야죠. 사무실에 앉아서 할 만큼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히긴스는 곧바로 미 극동군사령부로 달려갔다. 부관은 사전에 허락 없인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히긴스는 맥아더 장군을 꼭 만나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들어오라고 해.”

맥아더의 중후한 중저음 목소리가 문밖으로 새어 나왔다. 히긴스는 맥아더 장군한테 워커 장군이 말한 그대로 말을 했다.

“장군님, 전 말이죠. 여성이기보다 기자입니다. 워커 장군이 말한 편의시설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데나 나무 덩불이 있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가 많이 화가 났구먼.”

“장군님. 전 기자로서 평가받길 원합니다.”

“.....”

“부관.”

“네, 장군님.”

“오늘부로 한국에서 여성 기자의 취재 금지를 철회하겠다. 마거릿 히긴스는 기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다. 이런 기자를 이곳에 묶어두는 건 옳지 않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히긴스는 다시 짐을 꾸리고 미 군용기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넜다. 그녀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 때 6·25 전쟁 전황은 심각했다. 북한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참전했지만, 8월 1일 낙동강까지 밀려내려 왔다.

## 낙동강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수하라

위커 장군의 명령에 유엔군과 한국군은 8월부터 영덕에서 왜관, 마산에 이르는 240km 낙동강 전선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마산에 도착한 히긴스는 서남부 전선에 있는 유일한 중군기자였다. 히긴스는 제 25사단 27연대 마이켈리스 부대가 임시 본부로 사용하던 진동초등학교(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에 머물면서 기사를 작성해 뉴욕에 송고했다.

8월 3일 아침 7시쯤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다. 학교 건물 뒤 야산에 북한군이 몰래 침투해 왔는데 이를 본 미군이 한국군으로 오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북한군의 기습에 당황하던 미군은 초기에 큰 피해를 봤다. 히긴스 역시도 학교 건물에 바짝 엮드려 공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적의 기관총은 히긴스가 있는 곳에 집중 사격을 퍼부었고, 그녀가 잠을 자는 간이침대 방에 수류탄이 터졌다. 이때 히긴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미군의 반격이 시작됐다. 미군은 탱크 부대와 포병의 지원으로 마산을 뚫고 부산으로 진격하려 한 북한군 6사단을 물리쳤다.

“히긴스 기자,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존 마이켈리스 대령이 다가와 물었다.

“전 괜찮습니다, 대령님.”

“그래요? 다행이군요.”

“저, 대령님. 제게 카빈 소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카빈 소총을요?”

“네, 이번 전투에서 빠져리게 느낀 게 있는데, 제 몸은 제가 보호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하하하, 기자에겐 펜과 카메라가 무기가 아닙니까.”

대령은 그녀에게 카빈 소총을 내주었다. 이날 이후 히긴스는 카빈 소총을 카메라와 함께 메고 다녔다.



마거릿 히긴스



낙동강 방어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 북한군 7사단은 통영을 점령하고 거제도를 공격해 마산항과 진해항을 봉쇄하려는 작전을 펼쳤다.



이에 해병대는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김성은 부대’를 투입하여 즉시 거제도를 상륙해 통영으로부터 거제도를 향하는 적을 물리치라는 손원일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았다.

1950년 8월 17일 새벽 김성은 부대는 함정에 나눠 타고 거제도 북방면에 도착했다. 함정들은 약속대로 아침까지 통영 항구에서 정면으로 함포 사격을 개시했다. 이는 적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해병대 2중대는 18일 새벽에 고성에서 통영으로 진입하는 원문고개를 확보한 후 적의 진격을 막아냈다. 이날 오후 적 백여 명을 사살한 해병대는 통영을 완전히 탈환했다. 이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보다 한 달 먼저 성공한 한국군 단독 작전으로 통영 상륙 작전이라고 한다.

김성은 부대는 6·25 전쟁 당시 1950년 7월 여수 상륙 작전, 남원 전투, 함양 백암산 전투, 진주 전투에 참여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마산 진동리 전투, 1950년 8월 경상남도 통영 상륙 작전에 성공한 뒤 1951년까지 태백산 작전 수행, 마전리 전투, 흥남부두 철수작전, 백두대간 전투, 주왕산 덕산계곡 전투, 영덕지구 전투, 속골·녹전리 전투, 고비덕산 전투, 홍천 가리산 전투, 춘천 화천지구 전투, 도솔산 전투, 대우산 전투 등에 참전했다.

1952년 10월부터 해병 제1 전투단장이 되어 사천강 전투에 참여했고, 1953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벌어진 연천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통영 상륙 작전 당시 히긴스도 해병대 탈환 작전을 함께했는데, 그녀는 이번 작전 성공에 관한 기사를 써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실었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그것을 번역하여 국내에서 보도한 신문에 따라, “Ghost-Catching Marines” 즉, ‘귀신 잡는 해병대’란 말이 탄생했다.

9월이 되자 낙동강 방어선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또 맥아더 장군에 의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북한군은 위에서 아래에서 퇴로가 막힌 채 패퇴하기 시작했다.

## 중국군의 개입과 장진호 전투

서울 수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인명 피해도 꽤 커서 삼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 9월 26일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로 진입하자 북한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 38도 선을 돌파한 국군은 과죽지세로 개성과 평양을 함락하고 미 해병 2사단은 원산을 함락했다. 통일이 멀지 않은 듯 보였지만 중국의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약 38만 명의 중국군한테 압록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국군은 압록강 초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원산을 함락한 미 해병 1사단은 북한의 임시 수도인 강계를 함락시키기 위해 장진호 방면으로 북진을 계속했다. 하지만 추위가 문제였다. 해발 700~1,000m에 이르는 겹겹이 쌓인 장진호 계곡에 들어선 해병 1사단은 영하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 고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중국군의 제2차 공세로 미 8군단이 무너지자 유엔 사령부는 전면 철수를 명령했다. 1950년 11월 27일 장진호 철수 작전이 시작됐다. 며칠 뒤 히긴스가 이곳에 도착했다.

“중국군은 해병 1사단의 뒤로 몰래 침투했다. 해병대원들은 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사망이 중국군이라는 바다에 갇혔다.”

혹독한 추위로 인해 동사자들이 속출했다. 장진호 전투에서는 전투 전사자보다 추위로 인한 전사자가 더 많을 만큼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스미스 사령관님, 지금 우리 해병은 철수하는 겁니까?”

중군기자 한 명이 지나가던 스미스 사단장을 보며 말했다. 스미스 사단장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활약한 노련한 장군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중군기자들을 보며 말했다.

“철수라니? 우리는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해병 1사단은 철수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을 위한 14일간의 긴 여정에 들어갔다.



마거릿  
히긴스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 1개 연대는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 오는 중국군과 혈전을 벌이며 흥남으로 철수를 계속했다. 전사자들을 모두 데려가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 그래서 언 땅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 3개의 구덩이를 만든 다음 이곳에 수백 구의 시신을 묻었다.

장진호의 밤은 길었다. 오후 4시 30분쯤이면 주변이 금방 어두워지고 아침 8시나 돼야 햇빛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철수 작전이 잠시 멈췄을 때 히긴스의 눈에 추위에 오들오들 떨던 병사가 보였다. 그는 미 해병 조지 중대 병사였다. 히긴스가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원할 건가요?”

병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내게 내일이라는 것을 준다면 고맙겠소.”

14일간이나 계속됐던 장진호 전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다.

12월 11일 마침내 마지막 부대가 함흥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서 14일간의 철수 작전은 성공리에 끝났다. 미 해병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철수 작전이었지만, 이들이 중국군을 장진호에 붙잡아둠으로써 중국군의 제3차 공세를 늦출 수 있었고, 10만 5,000여 명의 국군과 유엔군이 흥남으로의 철수가 쉬웠으며, 또한 9만여 명의 피란민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는 큰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 종군기자로서의 참된 인생을 살다간 히긴스

히긴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전쟁 WAR IN KOREA》이란 책을 썼다. 이 책으로 히긴스는 여성 최초로 풀리처상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큰 상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25 전

쟁은 제가 1950년 6월 27일부터 12월까지 11월 4주 만을 제외하고 최전선을 뛰어다니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르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저널리스트로서 기록을 남기고자 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는 여기저기에 자신의 책을 들고 다니며 한국을 도와야 한다며 역설했다. 히긴스의 말에 감동한 많은 미국 젊은이가 미군에 자원입대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다.

6·25 전쟁 이후 히긴스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중군기자로 취재 활동을 벌였다. 1965년 라오스에서 풍토병을 얻은 그녀는 1966년 1월 3일 45세의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쳤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은 약 4만 명이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영원한 안식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 그녀도 잠들어 있다. 미국 정부는 그녀가 군인 못지않게 한·미동맹에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이곳에 안장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는 마거릿 히긴스의 유족(딸)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했다.

6·25 전쟁에서 사망한 중군기자는 20여 명에 이른다.

# 이정숙

1922. 2. 18.~1959. 10. 14.



2015년 2월, 이딸의 6.25 전쟁 호국영웅  
이정숙과 구월산 유격대의 헌신적인 희생

이정숙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에게 부모와 남편을 잃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황해도 안악에서 서하 무장대를 조직하여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정숙은 김종벽 대위가 조직한 구월산 유격대에 합류했다.



김종벽 대위요, 잘 오셨소.

이정숙입니다.



채령유격대원들이 눈보라에 길을 잃어 서하면에 있다 한다. 길을 안내할 대원이 필요하니 작원할 사람 있는가?



제가 가요.

그럼, 부탁한다.



1951년 1월 18일, 허름한 차림의 시골 여자로 위장한 이정숙은 밤새 100여 리를 걸어 유격대원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곳으로 갔다.



내가 여자라서 망설이는 것이라면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를 유격대원으로 생각한다면 따라오라.



수고했다.

할일을 했을 뿐입니다.

89명의 유격대원들을 구출한 이정숙은 그후로도 여러 작전에 참여했다.

## 구월산 여대장 이정숙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 대장님.”

“좋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이 대장이라 불리는 이는 구월산 호랑이라 불리는 이정숙이었다. 이정숙은 여성이었지만, 구월산 서하 유격대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여걸이었다. 전략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면이 부대원들에겐 경외감의 대상이었다.

“빨리빨리 하자고! 나도 한 번쯤은 폼 나게 따발총으로 갈기고 싶으니까 말이야.”

김동철이었다. 황해도에서도 거칠기로 유명한 재령 출신이었다. 그는 따발총을 쏘는 흥내를 내며 말을 이었다.

“이 대장님, 근데 38도선이 돌파된 게 언젠데 아직 국군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까?”

“해주가 그제 떨어졌다니까 여기도 멀지 않았어.”

1950년 10월 1일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처음으로 38도선을 돌파했다. 38도선을 돌파한 날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

이에 북한군은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국군의 북진 속도는 보급 부대가 뒤쫓아 오지를 못 할 정도로 빨랐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북한군이 보였다. 북한군은 안악에서 은천을 지나 평양으로 가려는 길이었다. 이들 역시도 빠른 국군의 북진 속도에 낙오된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낙오병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정숙이 이끄는 서하 무장대보다는 병력과 무기 면에선 압도적이었다. 서하 무장대의 병력은 약 70명, 무장 정도는 일제가 버리고 간 38식이나 99식 소총으로 무장했지만, 대부분 낫과 몽둥이가 주를 이룰 정도로 열악했다. 하지만 서하 무장대는 구월산 부근이 고향인 청년들이 대부분이라 지리를 잘 안다는 게 이점이려면 이점이었다. 북한군이 시야에 들어오자 무장대는 이정숙을 바라보았다.

이정숙이 손을 들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총구를 북한군에 겨누었다.



“췌”

이정숙의 말소리에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탕·탕·탕~

서하 무장대의 기습 공격에 밥을 먹던 북한군은 우왕좌왕했다. 여러 명의 북한군이 쓰러졌다. 그러나 정규군답게 이내 엄폐물에 몸을 숨기곤 반격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다.

이정숙 대장은 반대편을 보고 수화로 지시를 내렸다.

이내, 골짜기를 뒤흔드는 엄청난 함성이 들렸다. 그 함성은 최소한 수백 명 정도의 병력이 내는 소리 같았다. 반격 준비를 하던 북한군은 당황하며 다친 병사들을 버리고 반대편 능선을 따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돌격!”

이정숙 대장의 신호에 서하 무장대가 골짜기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다. 물론 맨 앞자리는 이정숙 대장 몫이었다.

투·타·타·타·타~

“하하하. 이게 따발총이요, 따발총. 이 물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으하하.”  
김동철이가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따발총을 허공에 마구 쏘면서 말했다.  
이번 기습 공격은 성공이었다.

“이 대장, 부상병들은 어찌할까요?”

“우선 동굴에 감금하고 국군이 이곳으로 오면 넘기면 돼.”

“알겠소.”

“모두 수고 많았어요.”

이정숙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농민들에게 말했다. 농민들은 구월산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북한군에게 무장대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우리야 이 대장님을 믿지만,  
나중에 저놈들이 보복할까  
봐 그게 두렵지요.”

낫을 들고 있던 촌로 한 명



이정숙





이 수심이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국군과 유엔군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곳이 적의 수중에 넘어갈 리는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이곳이 적들에게 함락이라도 된다면 나, 이정숙이가 온몸으로 막을 테니까 모두 걱정 붙들어 매고 다음에도 제가 요청하면 이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린 이 대장을 믿소.”

이 말을 남기고 농민들은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다.

90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구월산은 예로부터 임꺽정과 장길산의 주 무대일 정도로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산이었다. 이곳이 이정숙과 서하 무장대가 활동하는 지역이다. 이정숙은 노획한 무기들을 공평히 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는 밖으로 나왔다.

아직 10월 초지만 깊은 산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이정숙은 등근 달을 보며 잠시 회한에 빠져들었다.

## 봉기를 준비하다

1922년 함경도 함흥에서 부유한 집안의 무남독녀로 태어난 이정숙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님과 남편을 잃었다. 그녀 역시도 반동분자로 몰려 복역했다. 1949년 자신을 죽이려는 북한군의 계획을 알게 된 이정숙은 그날 밤, 강제수용소를 탈출해 남쪽으로 가려 했지만, 삼엄한 경비 탓에 38도선을 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황해도 안악이었다. 안악에는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얼핏 생각해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처럼 무모한 일이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야 했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말이다.

“혹시 함흥 어르신 따님 아니신가?”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이정숙 앞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누구?”

고개를 든 이정숙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함흥을 떠난 지 20여 일 만에 드디어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혹시 콰이태 아저씨 맞죠?”

“그러, 나 안악 사는 콰이태여.”

“아, 아저씨!”

이정숙은 콰이태를 보는 순간, 설움이 폭발했다.

“흑흑흑.”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 집에 가자, 어서.”

콰이태 집으로 간 이정숙은 그간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콰이태는 만주에서 이정숙 아버지와 사업관계로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은 처지라서 이정숙 일이 남의 일 같지는 않았다. 콰이태는 안악에 이정숙의 거처를 마련해주었고, 신분 또한 처조카라고 안악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이정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38도선을 넘으려고 시도했다. 콰이태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곳은 자신의 부모와 남편을 죽인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짱~짱짱~짱~

송림제철소가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폭발하고 있었다.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인한 폭발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초반에는 공산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세했지만, 유엔군의 참전과 분전하고 있던 국군,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초반과는 달리 유엔군의 우세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한반도 제공권은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했고 제철소와 도시를 가리지 않는 폭격으로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또 평양으로 실어 나르는 부상병들의 숫자가 급증했다.

이 모든 것을 본 이정숙은 북한군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해.’

이정숙은 안악과 은율 등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군사시설과 무기고 등을 둘러봤다. 만약 봉기한다면 우선 무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무기고 위치를 대략 파악한 이정숙은 서하면에 살고 있던 콰이태의 조카



이정숙

들을 만났다. 이정숙은 조카들에게 봉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소문 들으셨어요, 누님?”

“무슨 소문?”

“지금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누님. 신천이나 신원 재령 쪽은 아주 난리랍니다.”

“그럼 여기도 무사하지 못하겠는걸.”

“그렇겠죠. 여기라고 뭐, 저놈들이 봐주진 않겠죠.”

“우리 구월산으로 들어갈까?”

곽이태의 둘째 조카인 곽황영이 말했다.

“구월산?”

“응, 어차피 전쟁에 나가서 개죽음당할 바에야 구월산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 형?”

“야~ 우리가 임꺽정도 아니고.”

곽경영이 동생을 타박하며 말했지만, 그 역시도 동생의 말이 허튼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혹시 서하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잠자코 형제들 말을 듣고 있던 이정숙이 말했다.

“못 해도 수백은 될걸요.”

“며칠 전에 송림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된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더구나 북한군이 밀리고 있던 소문도 있고요.”

“라디오 선전대로 북한군이 승리하고 있다면 송림제철소는 불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강제 징집도 없을 거야. 이 모든 것은 북한군이 밀리고 있던 증거일 테고.”

“.....”

두 조카는 말없이 이정숙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는 묘수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것만 같았다.

“황영의 말대로 구월산으로 들어가자.”

“네? 구월산으로요?”

“그래, 우리뿐만 아니라 서하에 있는 모든 청년을 설득해서 들어가자.”

“하지만 그들이 들어갈까요?”

“어차피 안 들어가도 강제 징집은 피할 수 없어. 청년들에게 북한군의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는 건 구월산 입산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해.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야.”

“그런데 누님은 왜?”

“누님까지는 구월산에 안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난, 부모님과 남편을 공산당한테 잃었어. 이거라면 구월산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

곽이태 조카들은 이정숙의 진심을 알고는 서하 부근에 사는 청년들을 몰래 다니며 접촉했다. 서하 청년들도 북한군이 징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너도나도 구월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제 시기만 남았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당장 문 열어, 문!”

곽이태가 마련해준 집에서 홀로 살고 있던 이정숙은 문을 거칠게 흔들며 소리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구……?”

이정숙이 문을 열자마자 북한의 보위부 장교 한 명과 병사 한 명이 들어닥쳤다.

“이 반동분자를 끌고 가.”

“네!”

“무,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함흥에서 도망쳐서 이곳 안악까지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누군가가 밀고한 게 틀림없었다.

“전 함흥에서 온 게 아니라 의주에서 온 이정숙입니다. 신분증도 있다고요.”

보위부 장교의 권총 총구가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했다.

“한 번 더 떠들면 여기서 즉결처분하겠다. 알겠나?”

순간, 보위부 장교가 들고 있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고는 힘



이정숙

없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뒤를 이어 병사도 맥없이 쓰러졌다.

“누님!”

곽이태의 조카들이었다. 조카들이 청년 몇 명을 이끌고 와 이정숙을 도와준 것이었다.

“누님, 신천에서 우익 청년들이 봉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익 봉기라고?”

“네, 후퇴하던 북한군이 신천 우익 인사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고 있는 것을 숨죽여보고 있던 우익 청년들이 나서서 그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시기가 빨리 왔다.

이정숙은 시신들을 처리하고는 곽이태의 조카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모아 그동안 보아왔던 무기고로 향했다. 다행스럽게도 무기고를 지키는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국군의 복진 소식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 틀림없었다.

“뭘야? 이런 총들밖에 없는 거야?”

잔뜩 기대하고 문을 열었지만, 무기고 안에는 일제가 버리고 간 38식과 99식 소총만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래도 탄알은 꽤 있네.”

이정숙은 소총 아래에 탄알들로 가득 찬 상자들을 보며 말했다.

이정숙과 서하 청년들 70여 명은 무기들과 탄약 그리고 약간의 다이어나이트를 들고 구월산으로 들어갔다. 비록 국군이 복진하고 우익 청년들이 봉기하고 있다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북한군의 세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정숙(중앙)과 구월산 대원들  
[출처] 이정숙 아들 김광민 소장

탕탕탕~

학도병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연백 출신 강한수의 아버지가 38식, 99식 소총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과녁에서 빗나갔지만, 점차 과녁 안으로 총알이 박혔다. 어느 정도 총이 손에 익자 이정숙은 서하 무장대와 함께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던 여러 검문소를 습격했다. 처음에는 사람을 향해 총도 못 쏘고 두려워하던

무장대는 이정숙이 앞장서서 총을 쏘자 두려운 마음도 잠시, 적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나를?”

“네, 대장. 우리 서하 무장대는 이정숙 대장을 우리 무장대 대장으로 모시기로 했소.”

김동철이 북한군 장교가 사용하던 권총을 이정숙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난 여잔데 괜찮겠어?”

“여자든 남자든 전쟁터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요.”

“안 그래?”

동철이가 무장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린 이정숙 대장을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이로써 이정숙은 서하 무장대 여자 대장이 됐다. 서하 무장대는 북한군을 상대로 여러 전과를 올렸다. 겨울이 오기 전까진 구월산 일대에 숨어 있는 패잔병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것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고 평양이 적의 수중에 함락됐다. 결국 1951년 1월 4일, 수도 서울이 다시 중국군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1.4 후퇴였다.

## 구월산 유격대

고립무원이었다.

이정숙은 돌파구를 생각해내야 했다. 다른 무장대들은 석도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 이곳을 무대로 적 후방을 교란시켰다. 아무리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바뀌어도 해군은 여전히 유엔군의 우세였기 때문이었다.

“이 대장님, 우리도 석도로 갑시다.”

“하지만 석도로 가기도 전에 북한군에게 몰살당할걸.”

“몰살은 무슨, 무서우면 따라오지 않아도 돼.”



이정숙

“내가 언제 무섭다고 했어.”

김동철과 곽황영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

“그만, 그만해.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정숙의 한마디에 김동철과 곽황영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 대장님, 잠시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곽경영이 막사 안으로 들어와 이정숙에게 말했다.

막사 밖에서는 국군 장교가 이정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종벽 대위요.”

김종벽이 이정숙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정숙은 김종벽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정숙입니다.”

자신을 김 대위라고 소개한 그는 자신이 구월산 유격대를 이끌고 있다며, 서하 무장대도 유격대에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이정숙은 서하 무장대와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서하 무장대는 정식으로 구월산 유격대에 편입됐다.

구월산 유격대는 ‘동키 제2부대’라고도 불렸는데, 1950년 10월 중순,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과 이도면 등의 반공 청년들로 조직된 연풍부대가 그 모태였다.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의 김종벽 대위가 황해도 기독교 청년·반공 청년들의 자연 발생적 무장 조직을 규합하여 1950년 12월 7일에 창설한 유격대이다. 초기에는 150명의 병력으로 시작했으나 피란민들이 모여 규모가 커졌다. 유격대원들은 주로 기습이나 수색, 매복 등의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구월산 유격대는 황해도 앞 서해 지구, 웅도, 청양도에서의 섬 지역 방위와 공격 활동을 수행하면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구월산 유격대 말고도 북한 쪽에는 자연스럽게 조직된 유격대가 많았다. 이들은 북한 후방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유격 부대원들은 휴전 후인 1954년 2월 753명이 장교로, 1만 2천여 명이 사병으로 국군에 입대하는 등 우리 육군에 주로 편입되었다.

## 89명을 살리다

1951년 1월 17일 오후

“이 보좌관!”

김중벽 대위가 이정숙이 있는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네, 대위님.”

“이 대장이 꼭 해야 할 임무가 있소.”

“무슨 임무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반공 청년 재령 부대원 300여 명이 이곳으로 오던 도중에 눈보라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대장이 가서 그들의 길 안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출발할까요?”

이정숙은 김 대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양복 백 리가 넘는 길ियो. 더구나 눈보라가 치고 있고요. 사실 다른 대원들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지만, 선뜻 나서는 대원들이 없었소. 그런데 이 대장이 나서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김 대위의 눈빛은 진짜였다. 진짜로 이정숙에게 고마워하는 눈빛이었다.

이정숙은 서둘러서 군복을 벗고 시골 아낙네로 위장했다.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는데 눈에 살기만 빼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처럼 보였다.

이정숙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엄청난 눈보라가 이정숙을 향해 파고들었지만, 한시도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재령 유격 부대원들이 북한군에게 생포되거나 눈보라에 길을 잃어 얼어 죽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릎까지 빠지게 하는 눈이 그녀의 다리를 무디게 했다. 이정숙은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위험하지만, 도로를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도로 쪽으로 내려온 이정숙은 그나마 걷기에는 편했다. 조금만 조심하면서 움직이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길을 지나던 북한 군관이 그녀를 세웠다.



이정숙



“거기 여성 동무!”

“저, 저요?”

“거기에 여성 동무밖에 더 있소? 이쪽으로 와 보시오?”

이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북한군에게 다가갔다. 만약을 대비해서 품 안에 있는 권총을 슬쩍 만져보았다.

“어디 가는 중이요?”

“서하면에 가는 중입니다.”

“서하면?”

북한 군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정숙을 훑어보며 통명스럽게 말을 이었다.

“거긴 왜 가는 것이요?”

“친척 조카가 아프다고 해서 약초를 캐서 가는 중입니다. 여기 보세요. 약초입니다.”

이정숙은 보자기를 풀어 약초를 보였다.

“인동초구면.”

“.....”

붕~

이때 북한군 수백 명을 실은 트럭 십여 대가 그들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서하면으로 가는 트럭 행렬이었다. 분명 재령 유격대들을 토벌하기 위해 가는 북한군이였다. 이정숙은 마음이 급해졌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트럭을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든 북한군 트럭보다 앞서서 재령 유격대를 만나야 했다.

“가, 가도 되나요?”

북한 군관은 인동초를 한 뿌리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고는 이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보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숙은 연신 허리를 구부리며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허리를 굽혔다.

이정숙은 몸과 마음이 급했다. 북한군보다도 더 빠르게 가야 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눈보라가 아까보다는 약해졌고 또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서 트럭 역시도 움직임이 둔해졌다는 것이었다.

‘능선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야만 북한군보다 1분이라도 일찍 도착할 수 있다.’

이정숙은 다시 능선을 타기 시작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눈에 뒤덮인 산길은 평지보다 열 배는 더 힘이 들었다. 하지만 가야 했다.

헉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안내원을 기다리는 재령 유격대원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더구나 북한군이 그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만약 늦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득해지는 이정숙이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정숙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이곳 능선은 그녀에게는 꽤 익숙한 곳이었다. 북한군의 군사시설을 탐지하고 다닐 때, 이곳을 여러 차례 지나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휴~, 이곳이 마지막 능선이야. 바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서하면이다.’

이정숙은 능선을 따라 서하면으로 내려갔다. 산속과는 다르게 아지은 해가 남아 있었다. 서하면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바라보았다. 북한군을 태운 트럭 행렬이 보이지 않았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이정숙은 김 대위가 말한 접선 장소로 다가갔다.

“멈춰!”

“누구냐?”

총구가 그녀를 겨누었다.

“전 김종벽 대위님의 보좌관 이정숙입니다. 여러분의 길 안내를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여기 김 대위님의 친서입니다.”

이정숙은 김 대위가 써준 친서를 재령 부대 대장에게 보여줬다.

“음.”

“북한군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정숙은 재령 부대원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재령 부대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우리가 여자 하나 믿고 거길 어떻게 갑니까?”

“저 여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정숙

“난 안 가겠소.”

재령 부대원들은 이정숙을 선뜻 따라 나서기를 꺼려했다. 그녀가 여성이기도 했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모두 정신 차려!”

이정숙의 호통에 재령 부대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날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상관없지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것이 라면 당장 집어치워. 난 여자이기 전에 유격대원이다.”

이정숙의 단호한 말에 재령 부대원들의 불만이 속 들어갔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올 부대원들은 속히 서두릅시다.”

이정숙이 선두에 서자 몇몇 부대원이 나오더니 이내 많은 부대원이 이정숙의 뒤를 따랐다. 모두 89명이었다.

“갑시다.”

재령 유격대원 89명은 이정숙의 뒤를 따랐다. 남아 있던 유격대원들은 떠나는 유격대원들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일동 차렷! 경례!”

남든 떠나든 우리는 모두 재령 유격대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행동이었다.

‘부디 모두 무사하길.’

이정숙과 89명의 재령 유격대원들이 능선을 타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다. 분명 북한군과 재령 유격대원들 간의 교전 소리였다.

탕·탕·탕~

투타타타~

“가야 합니다. 저 밑에 동지들이, 동지들이 있습니다.”

재령 출신 윤영길이 자기를 막고 있는 이정숙의 어깨를 잡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안 돼, 영길아. 가면 안 돼!”

“형, 정도 형.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비극이었다.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재령 부대원 89명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구월산 유격대가 있는 곳으로 내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총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고생했소. 이 보좌관”

“고생은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숙은 김 대위에게 절도 있게 경례하고는 자신의 막사로 들어갔다.

이후, 이정숙은 북한군 습격을 위한 월사리 반도 상륙 작전, 어양리 지역 상륙 작전 등에 참여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정숙

## 대장 이정숙

1951년 1·4 후퇴(중국군의 공격으로 서울을 빼앗긴 사건) 이후 그녀가 활약한 황해도와 석도 등 섬들은 다시는 국군이 장악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고립된 채 이정숙과 구월산 유격대는 외롭지만, 용감하게 적들과 싸웠다. 만약 이정숙과 구월산 유격대가 없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들의 존재로 인해 북한·중국군 몇 개 사단은 남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구월산 유격대의 활약으로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확보하여 북방한계선(NLL)을 끌어올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정숙과 구월산 유격대의 헌신적인 희생을…….

이들로 인해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전쟁은 끝났다. 아니 휴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정숙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는 38살의 나이에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 앙리 모로 드 멜랑

(Henri Moreau de Melen)

1902. 8. 20.~1992. 5. 31.



2017년 11월, 이철의 6·25 전쟁 호국영웅  
별기에 국방영웅 장관직을 내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다

벨기에 정부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벨기에 브뤼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쟁 물자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하다.



히나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한다고 했는데, 물자만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도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유엔에 가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물자도 필요하지만 한국이 필요한 건 군대입니다.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국방장관님 말씀도 옳지만 전쟁이 끝난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낼 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벨기에에는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처지의 나라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설득대로 벨기에에는 3,500명의 병력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가 바로 벨기에 국방부 장관이자 상원의원인 앙리 모로 드 블랑이었다.



## 시몽피에르 노통브

“시몽피에르,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저도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올해 몇 살이지?”

“17살입니다.”

“우리 벨기에군은 19세가 되어야 입대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이신 물랑 소령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하하.”

“.....”

“자원입대하고 싶으면 19세가 되는 내후년에 오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어찌합니까?”

“그건 그때 생각해 보고, 이왕 왔으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나.”

“아닙니다. 내후년에 입대하려면 체력부터 키워야 하겠네요. 실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아버지 노통브 남작한테 안부나 전해주게.”

“네.”

소년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나섰다.

그를 바라보는 물랑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6·25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귀족들이 있다는데, 귀족 출신 소년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여하겠다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구먼. 노통브 남작이 아들은 아주 잘 키웠어.’

그는 물랑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년 후인, 1952년 7월 4일 19세의 나이로 벨기에군에 입대해 6·25 전쟁 참전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가 입대하자 그의 집안에선 난리가 났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귀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사병으로 참전은 안 된다.”

물랑의 오랜 친구이자 시몽피에르의 아버지인 노통브 남작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앙리  
모로 드  
믈랑

“귀족은 장교로 참전해야 격에 맞는다. 알겠느냐?”

노통브 남작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귀족이 사병으로 참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전 귀족으로서 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벨기에군의 일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

“노통브 남작님,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다. 허락하마. 하지만 몸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시몽피에르 노통브는 중국군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거 빼놓고는 계속 전투에 참여한 뒤 1954년에 벨기에로 무사히 귀국했다.

##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벨기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6·25 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이 되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인 벨기에에서도 6·25 전쟁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또다시 전쟁터로 보내 피를 흘리게 할 순 없습니다.”

“맞습니다.”

“유엔이 요구하는 지상군을 파병할 순 없소. 우리는 전쟁 물자와 의료품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결정합시다.”

벨기에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의견은 물자만 보내자는 쪽이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상원의원이자 국방부 장관인 믈랑이 입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프랑스, 북쪽으로는 네덜란드, 동쪽으로는 독일 등 열강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았고, 더 멀게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벨기에에는 작은 나라인 한국의 도움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지났고 전후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ですよ. 하지만 아픈 이웃을 돕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아프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플랑의 말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수긍했다. 벨기에는 1950년 7월 22일 1개 보병 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 국정 활동 시절의 모로 드 플랑(원 안)

1902년 벨기에 리에주에서 태어난 모로 드 플랑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벨기에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지만, 독일군에게 붙잡혀 1945년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 포로 생활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 생활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1950년 6월 8일부터 국방부 장관이 된 그가 한국 전쟁의 참전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었다.

## 국방부 장관직을 버리고 재입대를 결정한 앙리 모로 드 플랑

“뭐라고? 레오폴드 3세 폐하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가 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장관님. 의원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 폐위되신 레오폴드 3세 폐하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에 항복하고 영국 망명 정부에 합류하지 않은 행적을 지적하며 왕위 자격을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대응은?”

“그게 일부 국무위원들은 의원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감히 폐하께 ……”

왕정주의자였던 플랑은 정치권이 레오폴드 3세에 대해 비판을 늘어놓자 국방부

장관직을 버렸다. 그리고는 한국 파병을 위해 창설된 ‘벨기에 유엔군 사령부’에 재입대하기로 했다.

“의원님, 모르셨습니까?”

벨기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자원입대를 받고 있던 대위 한 명이 재입대 서류를 가져온 물랑을 보며 말했다.

“뭘 말인가? 출생증명서와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서류, 또 뭐가 더 필요한 건가?”

물랑은 가져온 서류를 들춰 보며 빠진 것이 있나 살펴보면서 말했다.

“상원의원은 해외 파병을 금지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의원님이 상원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법률상 재입대는 물론이고 파병 역시 불가합니다.”

“허허.”

물랑은 뜻밖의 상황에 머리를 굽적였다.

그가 옳았다. 상원의원은 해외 파병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물랑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여러 의원을 만났다.

“나 좀 도와주시게나.”

“하지만 법을 바꾸려면 꽤 복잡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번 전쟁에는 꼭 참전하고 싶어서 그러네. 자네도 알다시피 난 나치의 독일군들과 싸울 때 꽤나 일찍 전쟁 포로로 잡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종전될 때까지 전쟁 포로 생활을 했고 말일세.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전우들은 피를 흘리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때, 난 포로 수용소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안락한 생활이라니? 자넨 조국에 충분히 할 만큼 했네.”

“아자르, 난 그 빛을 갖고 싶다네. 비록 상대가 독일은 아니지만,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싶네. 이것으로 죽어간 전우들에 대한 마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다네.”

그는 여러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설득했다.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법



양리  
모로 드  
물랑

을 고쳐달라는 상원의원이라니, 모두 놀라워했지만 법률이 개정되었다.

## 마침내 6·25 전쟁에 참전하다

광!

그의 재입대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원래 계급은 중령이었지만, 통신장교 소령으로 계급을 낮추어 6.25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나이 50세였다.



크레하이 중령이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를 이끌었다. 병력은 벨기에 1개 대대 900명과 룩셈부르크는 1개 소대 44명이었다. 3년의 전쟁 기간에 벨기에는 3,498명이, 룩셈부르크는 89명이 참전했다. 벨기에군은 106명이 전사하고 350명이 부상하는 희생을 치렀다.

1951년 4월 22일,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는 영연방 29여단에 배속되었다. 중국군의 춘계 공세 당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는 연천군 금굴산을 방어하고 있었다.

“물랑 소령님, 그리고 제군들!”

작전회의에 여러 명의 장교가 참석한 가운데 크레하이 중령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물랑을 예우해 주었다.

“네, 중령님.”

“만일 이곳이 중국군에게 함락되면 전곡과 연천, 철원을 잇는 도로가 차단된다. 그럼 유엔군이 큰 위협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 연합 부대가 이곳을 꼭 방어해야 한다.”

크레하이 중령은 지휘봉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중령님!”

장교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중령의 말에 답했다.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는 금굴산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고, 곳곳에 참호를 만들어 강력한 진지를 구축했다.

꽁, 꽁, 꽁!

지뢰 터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중국군은 앞에서 지뢰가 터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기어올라 왔다.

곳곳에 구축한 참호에서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의 중화기가 불을 뿜었다.

투타타타타~

밤새 격전을 치르고 아침이 되자 금굴산은 중국군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중령님!”

믈랑 소령이 참호로 다급하게 들어왔다.

“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중국군이 임진강의 교량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교량을요?”

“네, 우리 연합 부대는 꼼짝없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런 ……”

“우선, 미군에 탱크를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항공 지원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 철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령님!”

“콩파니 대위! 지금 당장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게.”

“네, 중령님.”

믈랑은 유엔군에 지원 요청을 했다.

철수 준비가 끝날 무렵, 저 멀리서 미군 탱크 소대가 중국군이 장악하고 있던 교량을 돌파하고 연합 부대로 달려왔다. 또 미군의 폭격기들이 날아와 중국군에 폭탄을 떨어뜨려 연합 부대의 철수를 도왔고, 마침내 중국군을 퇴각시켰다.

1951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학당리.

“병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중령님!”

“본대에 계속 지원 요청은 하고 있지만, 후발 부대가 부산에서 이곳까지



양리  
모로 드  
믈랑

오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51년 2월 초기에 투입된 연합 부대원들은 교체 시기를 맞아 한국을 떠났고, 이들과 교대하기 위한 후발 부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래는 900명이 있어야 하는데 학당리에 배치된 병력은 고작 5백 명이 조금 넘었다. 이 병력으로 중국군의 사단 병력과 싸워야 했다.

10월 12일 밤 11시 30분.

중국군 141사단은 일제히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연합 부대는 이들이 올라오는 길목마다 철조망과 중화기를 배치했다. 처음에는 중국군을 패퇴시켰지만, 끝없이 몰려오는 중국군을 막아내기에는 무리였다. 한때 연합 부대의 사령부가 함락되기는 했지만,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 기세에 밀린 중국군은 수많은 시체를 남겨두고 퇴각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싸워 이긴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로 인해 유엔군은 철원에서서의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진정한 자유 수호자

플랑은 중령으로 진급한 뒤 벨기에로 돌아왔다.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1968년까지 리에주에서 상원의원을 지냈다. 또 1968년에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1992년 숨을 거뒀다.

대한민국 정부는 벨기에·룩셈부르크 연합 부대의 혁혁한 공을 기려 1975년 9월, 경기도 동두천에 참전 기념탑을 세웠다.

자유와 평화의 신념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고귀한 피를 흘린  
전·사상자의 이름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오.

벨기에에는 한국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다.

### 잊혀진 전쟁

그러나 박물관을 나설 때는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다.

### 더는 잊지 않는다.

앙리 모로 드 플라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진정한 자유 수호자였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전쟁의 한가운데서 전우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앙리  
모로 드  
플랑

# 박관현

1953. 06. 10. ~ 1982. 10. 12.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 학생 운동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언급된 박관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이다.



준비해야 합니다. 1980년 5월의 항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끝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최초의 야학인 들꽃야학을 박기순과 윤상원에 이어 이끌었다.



공부하러 가야지.

돈이 없는데, 가도 되나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야학이 생겨 터 배울 수 있게 됐어.

그는 배울에 고된 청년 노동자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 말이지...

하지만 5·17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수배를 받고 파산했다.



동지들은 싸우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던 말인가.

2년간 수배 생활 도중, 현상금을 노린 노동자들의 밀고로 체포되었으며 ...



모진 고문을 받고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다가 1982년 10월 끝내 숨졌다.





## 들불야학을 지키다

“우린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있어요.”

광주 광천공단 청년 노동자들은 퇴근길에 자신들을 취조하며 더 이상 들불야학 당에 가지 말라는 사복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재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을 공부시키겠냐? 이게 다 너희 모두에게 붙은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야. 앞으로 들불야학당에 가지 마. 마지막 경고야.”

사복 경찰들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경고하고는 어두운 거리로 사라졌다.

“허 참. 다음 주에 야유회도 간다는데, 어찌지?”

“어찌긴 뭘 어찌. 가야지.”

“하지만 ……”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신 분들이 들불야학 선생님들이야. 우리 그냥 가는 거야. 선생님들만 믿고 말이야.”

경찰의 압박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들불야학당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이어졌다.

“철경야. 요새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아버지가 들고 있는 게 뭘지는 아니? 네가 붙은 동아리에 가담하고 있으니 집에서 잘 감시하라는 경찰서 편지란 말이다, 편지.”

“아버지. 붙은 동아리가 아니라 우리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

“시끄럽다. 내가 이런 편지를 받으려고 소 팔고 땅 팔아서 너 대학 공부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 야학인지 뭘지 그만둬라.”

“…….”

“에비 말 알아들었냐?”

“네, 아버지.”

들불야학당은 전남·광주 지역 최초의 노동 야학이다. 박정희 독재가 절정에 이를 무렵인 1978년 10월 박기순과 나중에 합류한 윤상원의 주도로 세워졌다. 들불야학은 광천공단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공부하는 노동야학당이였다.

들불야학은 1980년 5월에도 불길히 타올랐다. 들불야학 선생님들은 언론이 외



박관현

면한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을 지하 유인물과 투사 회보로 알렸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많은 야학 선생들은 정부의 탄압으로 구속과 수배 그리고 죽음을 당했고, 1981년에 이르러 폐교되었다.

2013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는 한쪽 벽만 남긴 채 철거된 들불야학당터를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로 지정했다.

1979년 1월 2기 입학식엔 1기보다 청년 노동자들이 두 배나 늘었지만, 이들을 가르치던 선생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정부 당국의 강한 압력 때문이었다.

들불야학에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박관현은 어때?”

“박관현 형이라면 딱 제격이죠. 얼마 전에 노동자 실태 조사에도 박관현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법고시 준비 중인데, 야학 선생이 되어 줄까?”

“우린 박관현이 필요해.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듯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말이야.”

### 박 관 현

6·25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6월 10일, 전남 영광에서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특히 어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초·중·고를 졸업하고, 1978년 전남대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겨울방학 때 광주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들불야학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박관현은 변호사가 되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갈등을 했다.

“그래? 그럼 야학 선생엔 별 관심이 없나 보네?”

“그런 것 같아. 저 형 목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

후배들은 박관현의 행동에 서운했다. 지난 겨울 노동자 실태조사 때의 열정적인 모습에 반한 후배들이 하나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삼고초려(三顧草廬)** ‘오두막집을 세 번 찾아간다’는 뜻. 중국 촉한의 임금 유비가 제갈공명(제갈량)의 오두막집을 세 번 찾아가 간청하여 마침내 제갈공명을 맞이했다는 데서 유래. 뛰어난 인재를 얻으려면 참성을 갖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

“그래?”

윤상원은 후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형, 다른 야학 선생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관현을 기다릴 거야. 내가 아는 한, 박관현은 우리한테 꼭 온다. 길은 내색하진 않지만 관현이는 갈등하고 있을 거야. 고민과 번민을 거쳐 확신이 들 때까지 말아야.”

윤상원의 말에 후배들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온다는 확신에 찬 윤상원의 표정을 후배들은 잊을 수가 없었다.

윤상원의 말대로 박관현의 내면에서는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가려면 정리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 무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배를 굶지는 않았어요. 아무 탈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재수도 했으며, 또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을, 노동자로서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내 형제 내 부모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불야학에서 해맑게 웃으며 선생님들의 한 글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졸린 눈을 비벼 가며 공부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처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노동자 문제는, 우리 형제 부모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박관현은 들불야학 선생님들 앞에서 읊조리며 말했다. 선생님들은 자기 고백 같은 박관현의 말에 숨을 죽이며 경청했다.

“들불야학에 제가 선생으로 참가해도 되겠습니까?”

광천 아파트에 모여 있던 야학 선생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바라보는 박관현을 열렬한 박수로 맞아 주었다.

1979년 4월 말, 박관현은 정식 야학 선생님이 되었다. 많은 청년 노동자 학생

들이 박관현을 바라보았다. 박관현이 야학 선생님이로 나선 첫 번째 날이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상철이, 넌 침 흘리며 졸지나 마.”

“내, 내가 언제 졸았다고 그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이석재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질문이 뭐죠?”

“야학 선생님이 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알다시피 지금의 정국은 혼란 그 자체잖아요. 있는 선생님들도 그만두고 말이죠.”

이석재의 말에 박관현은 노동자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둘씩 들불야학에 온 그들. 여전히 배움의 목마름을 느끼는 그들 앞에서 그는 입을 열었다.

“참여한 이유는 ……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들과 노동자 학생들은 그 짧은 한마디에 관현의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했다. 모두 그의 진심을 안 것이었다. 박수 소리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렸다. 박관현은 웬지 무안한 마음이 들었다.

1979년 5월 초가 되자 들불야학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야학 선생님들의 발길도 끊겼고, 수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야유회?”

“지금 야유회가 문제야. 우리 야학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하긴, 그렇기는 하네. 지금 상황에서 팔자 좋게 야유회를 갈 수는 없으니까.”

“왜 못 가. 가면 되지.”

박관현이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박관현

“그렇지만 ……”

선생님들의 염려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도 노동자 학생들과의 약속, 신뢰가 더 우선이었다.

“노동자 학생들이 이번 야유회에 가려고 며칠째 야근에, 일요일에도 공장에 나가 일한 거 몰라? 우리 문제로 노동자 학생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순 없어.”

박관현의 단호한 말에 다른 야학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야유회 당일이 되자 예상대로 많은 야학 선생님이 불참했다.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박관현과 선생님들은 노동자 학생들을 보기에 민망했다. 노동자 학생들은 대부분 참석했는데, 정작 야유회를 기획한 야학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박관현이 나섰다.

박관현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고무신을 벗어들고는 뱅글뱅글 돌렸다. 박관현은 예전부터 꽤나 흥겨운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실기시험 보던 날, 박관현의 순서가 되자 돼지 멍때는 소리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렀다. 친구들은 박관현의 우렁찬 목소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며 손뼉을 쳤다. 음악 선생님은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흥에 겨워 두 팔을 벌리고는 성악가 흉내를 내며 노래를 불렀다. 친구들은 배꼽을 쥐고 교실 바닥을 뒹굴며 웃었다. 이렇듯 박관현이 흥에 빠지면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오늘 야유회도 그랬다. 우울한 분위기를 고무신을 돌려가며 단숨에 바꾸어 버린 것이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 야유회 때도 기대할게요.”

노동자 학생들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헤어졌다. 야학 선생님들도 박관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고마웠다, 관현아. 너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야유회가 됐어.”

윤상원은 진심으로 박관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하하하, 뭘요.”

박관현에게는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다. 상대방이 누구든 스스로없이 먼저 다가서는 성격 탓에 노동자 학생들이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노동자 실태조사 때도

그의 친화력은 돋보였다. 상대가 대학생이어서 노동자들은 자격지심에 그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려웠다. 하지만 박관현은 예의 바른 태도로 그들을 대했고, 노동자들은 그의 진심에 먼저 다가갔다. 이렇게 광천공단 청년 노동자들과 박관현은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박관현

광천공단 근처에는 유흥업소들이 많았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한 노동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월급날이 아니어도 공단 근처에서는 싸움이 잦았다.

그런데 박관현이 들불야학에 나가면서부터 청년 노동자들과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자 박관현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이게 다 자네 덕분일세. 내 아들이지만 아주 정글정글했거든. 술만 마시면 어딘가 깨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자네가 하는 들불인지 햇불인지 하는 야학에 다니면서부터 확 달라졌다네. 아주 암전해졌어.”

“여기? 아이고 말도 마.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다니깐. 싸우고 던지고 부수고 아주 난장판이었어. 그런데 총각이 나서서 이 녀석들과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들어주고, 그걸 계속한 거야. 나라님도 못 할 일이지. 자기 할 일도 바쁘는데 이곳에 일부러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청년들, 불쌍한 애들이야. 겨우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다니잖아. 잘사는 집에 태어났으면 다들 대학교 다녔을 텐데. 어쨌든 우리 공단 주변 상인들은 박관현 총각을 무척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재네들을 순한 양으로 바꿔놓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박관현을 중심으로 한 선생님들과 들불야학은 청년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박관현과 윤상원은 들불야학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 못지 않게 전남대학 측의 압박에 맞서 싸워야 했다. 결의문을 발표했고, 야학 선생님들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부모님들에게 야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 측은 관현을 비롯하여 들불야학의 조용하고 강력한 저항에 당황했

다. 야학 선생님들을 억박지르면 제풀에 못 이겨 해체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저항에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머리가 아픕니다, 아파요.”

“지역 사회에서 들불야학에 관해 꽤 우호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압박하던 것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일단 이 상태에서 상황을 더 지켜봅시다.”

대학 학장회의에서는 들불야학과 야학 선생님들에 대해 더 이상의 압박을 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 이로써 박관현과 윤상원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던 야학 선생님들, 청년 노동자 학생들의 믿음과 신뢰가 들불야학을 지켜냈다.

##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18년 동안의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린 것이었다. 국민들은 겨울은 가고 민주화의 봄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러 정치 세력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바야흐로 ‘서울의 봄’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신군부가 등장하며 12·12 사태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현은 들불야학을 계속 지켜나갔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내게 맡겨진 소명이다. 들불야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해.’

그를 아는 학생들은 박관현이 청년 노동자 학생들을 이끌듯이 자신들도 이끌어 주길 바랐다. 하지만 박관현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진 않을 거야.”

“관현아, 너밖에 없다. 제발 선거에 나서 줘.”

“우리는 박관현 선배를 원합니다. 선배야말로 전남대학교를 이끌 적임자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들불야학 선생이야. 난 노동자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어. 그러니 더 이상 선거 얘기는 하지 말아 줘.”

박관현은 단호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박관현을 포기하지 않았다.

윤상원이 다른 전남대 선·후배를 보며 말했다.

“박관현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들불야학이라는 촛불이 사그라질 때 박관현이 기적적으로 나타나 다시 살렸죠. 박관현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힘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총학생회의 부활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관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네, 형. 대강당에서 학원 자율화 제2차 공청회가 열리는데, 형이 연설을 해줬으면 해서요.”

“알았어. 준비해 볼게.”

“고마워요, 형.”

1980년 3월 19일 공청회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가던 박관현과 후배는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대강당엔 1차 공청회와는 다르게 이삼백 명 정도밖에 모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형, 어찌죠?”

후배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

박관현의 차례가 되었다. 박관현은 검정 고무신과 험렁한 바지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여러분, 박관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렁찼다. 줄음으로 가득 찼던 공청회 분위기가 그의 큰 목소리로 인해 줄음이 확 깨는 공청회로 변했다.

“여기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학원 자율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학우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캠퍼스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거



박관현



나 주점에 있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우들입니다. 학원 자율화는 여기 계신 학우들이 아닌 대다수 학우의 참여 없인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박관현의 연설이 끝나자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박관현이 연단을 내려갈 때쯤 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 크게 소리쳤다.

“맞습니다. 이 공청회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뛰쳐나가서 학우들을 모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모인 의미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앞장서자 많은 학생이 그의 뒤를 따랐다. 교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호도 외치고 학생들을 설득했다. 그들이 대강당으로 돌아올 때쯤 끝이 보이지 않은 학생들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시 박관현이 연설에 나섰다. 박관현은 학원 자율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학생들은 그를 보며 열광했다.

“나 감동했어. 저 사람 진짜 연설 잘한다. 그런데 누군지 알아?”

“박관현이라고 법대생이잖아.”

“박관현?”

“그래, 검정 고무신으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말이야.”

박관현은 이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하하, 하하하!”

박관현의 들불야학 수업은 언제나 웃음이 넘쳤다. 위낙에 붙임성이 좋은 터라 누구든지 잘 어울리는 성격 탓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청년 노동자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내일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윤상원이 들어왔다.

“박관현, 애기 좀 할까?”

박관현은 윤상원이 무슨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를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이젠 도망갈 곳은 없다. 지금에야말로 결심을 할 때야. 이곳에서 영향력이 강한 전남대학교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운동의 방향이 바뀐다.”

“하지만 전 들불야학에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자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요.”



박관현

“그래, 그래, 맞아. 야학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먼저 돌아보는 게 급선무야. 요즘처럼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시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겐 필요하다. 그 지도자는 바로 너란 말이야. 이긴 시대의 명령이야. 넌 이 명령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

“우리 당당하게 피하지 말고 죽기 위해 살자.”

윤상원은 두 손을 내밀었다. 박관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상원이 내민 손을 붙잡았다. 윤상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1980년 4월 4일,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첫 합동 유세 날이 밝아왔다.

첫 번째 학생의 유세가 끝나고 두 번째로 박관현이 나섰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고는 긴 호흡을 했다.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한 민주학원의 새벽 기관차 기호 2번 박관현입니다.”

그는 장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단숨에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관현의 연설은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선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태풍의 눈을 벗어나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지 모르는 긴장감이 학생들 사이로 휘몰아쳤다.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게 하는 그의 연설이 그랬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리고 엄청난 환호가 박관현의 귓가에 맴돌았다.

박관현의 두 번째 유세에는 일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오로지 박관현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든 학생들이었다. 선거 결과 박관현은 투표율 72.6%에 64% 지지를 받으며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내의 정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이에 대학가는 5월부터 민주적 선거와 계엄령 해제, 신군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된 박관현은 시국 선언문을 내놓으며 학내 투쟁을 이끌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5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5월을 승리의 달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가열된 투쟁이 필요합니다. 5월 15일과 16일은 우리 전남대학교의 가두투쟁 역사의 한 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여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980년 5월 16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거행된 제3차 민족 민주화 대성회에는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집결했다. 이번 대회의 절정은 박관현의 등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민주화에 목말라 있던 광주 시민들에게 청량제 같았다. 또 이날부터 박관현은 광주 시민들에게 민주화의 상징이자 구심점이 되었다.

“우리가 민족 민주화 횃불 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쫓 피우고,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합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은 횃불처럼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 누리에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광주 시민, 아니, 전남 도민, 아니, 우리 민족 모두가 이 횃불을 온 누리에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박관현의 연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광주 시민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연설을 들었다.

“만약에 휴교령이 내려지면 약속한 바와 같이 오전 10시 대학 정문 앞에 모여서 투쟁하고, 12시 정오에는 이곳 도청 앞으로 다시 집결하여 오늘처럼 투쟁할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민족 민주화 대성회의 횃불 대행진은 밤 10시 30분경, 박관현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밤, 광주는 고요하고 평온했다. 집회를 마친 시민과 학생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유난히 평온해 보였던 5월 16일 그날 밤 이후, 광주의 비극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형, 박관현 형!”

후배 한 명이 전화 수화기를 떨리는 손

으로 내려놓으며 연이은 가두투쟁으로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박관현을 깨웠다.

“어? 어, 왜? 무슨 일 있어?”

“방금 서울서 연락 왔는데요, 지금 경찰들이 서울 시내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지도부를 검거하고 있대요.”

예상했던 일이었다. 다만, 그 예상이 좀 빨랐을 뿐이었다.

검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지도부에 전해지자 몇몇 학생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어차피 닥칠 일이었어!”

박관현의 말에 우왕좌왕하던 지도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모두 내 지시에 따라줘서 정말 고마웠다. 특히 5월 16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린 잠복한다. 몰려다니지 말고 분산해서 피신한다. 앞으로 학교에도 오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며 행동하도록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

박관현은 목이 메었다. 하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도부들은 더 두려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을 이었다.

“모두 몸조심해. 알겠지?”

이 말을 끝으로 총학생회에 모여 있던 학생회 간부들과 박관현은 뿔뿔이 헤어졌다. 박관현은 무등산 산장으로 피신했다.

5월 18일 새벽,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교에 공수부대가 배치되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 세력들이 계엄사로 끌려갔다.

박관현은 산장에서 내려와 윤상원에게로 갔다.

“지금 네가 핵심 인물이지 않아. 당장 광주를 떠나는 게 좋겠다. 네가 체포되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조직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에게 네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지금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알겠소, 형님. 그럼 형님도 몸조심하세요.”

윤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윤상원은 5월 27일 전남 도청에서 계엄군과 향전하다 사망했다.



박관현

5월 18일 밤, 박관현 일행은 여수 돌산 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다. 박관현은 시시각각 전해오는 광주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들리지 않는 실상의 광주 소식들이 전해지자 박관현은 더 이상 돌산 섬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광주에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나만 살자고 이곳에 숨어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간다! 광주로 간다!’

박관현은 이를 악물고는 섬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막 대문을 나서는 순간, 광주에서 돌산 섬으로 온 친구들이 그를 결사적으로 막았다.

“가지 마! 광주로 가면 절대로 안 돼! 넌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해. 훗날 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계엄군이 말이야.”

“지금 곳곳에 검문소가 깔려 있다. 넌 광주 근처도 못 가서 계엄군에 체포될 거야. 그러니 제발 광주로 간다는 생각은 버려, 제발.”

박관현은 문득 윤상원과 대화했을 때가 생각났다.

“죽기 위해 살자.”

‘죽기 위해 살자. 죽기 위해 살자.’

박관현은 그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아무 죄 없는 불쌍한 광주 시민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졌다.

“관현아, 살아있었구나. 흑흑흑.”

그해 6월 박관현은 서울 동생 집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큰누나를 만났다. 큰누나는 박관현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며 박관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박관현은 여수 근처 섬을 전전하며 피해 다녔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더 이상 위협에 빠뜨릴 순 없다는 생각에 결혼한 동생이 있는 서울로 간 것이었다.

## 광주의 별이 되다

경찰은 집요했다. 박관현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동생과의 만남 후 이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박관현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작은 공장에 취

업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공장 동료의 신고로 체포당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박관현은 그동안 그리웠던 동료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하지만 광주교도소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특히, 사상범에 대한 처우는 끔찍했다. 이를 항의라도 하면 특수 징벌방에 가두어 인권을 유린했다.

박관현은 이런 교도소의 처우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재소자 폭행 금지, 정치범에 대한 차별 대우를 개선할 것, 1982년 5월에 사망한 민주 인사 기정도의 사인을 규명할 것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단식 나흘째 되던 날, 교도관들이 그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징벌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러고는 박관현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죽물을 먹였다. 하지만 박관현은 굽히지 않고 끝내 거부했다.

그러자 광주교도소는 박관현의 요구 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시작된 단식은 14일 만에 끝이 났다.

8월 30일, 부림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왔다. 부림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상 최대의 조작 공안 사건이었다. 1981년 평범한 독서 모임을 공안 당국이 회사원 등 19명을 영장 없이 구속하여 최대 60일까지 불법 감금하고 고문을 자행한 사건이었다.

이들도 광주교도소의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했다. 이에 무차별 구타가 가해졌다. 이를 우연히 본 신영일이 박관현에게 알렸다. 신영일은 들불야학 때부터 동고동락했고, 박관현과 함께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후배였다.

박관현은 또다시 단식에 나섰다. 그의 두 번째 단식이 시작된 것이었다.

단식 10일째 되던 날, 박관현은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에 출두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계엄법 위반, 포고령 위반 등으로 피고인 박관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다.”

검사의 구형이 있는 뒤, 박관현은 최후 진술을 했다. 우선 5·18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진술을 시작했다.

박관현의 최후 진술은 법정에서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진술된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들의 눈시울을 자극했다. 박관현은 1, 2차 단식으로 침을 삼키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현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관현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동조했다.

박관현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을 때, 낡은 한복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벌떡 일어났다. 사람들의 이목이 그 여인에게 쏠렸다.

“내 아들 말이 모두 옳다! 전두환 대통령은 내 아들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 박관현의 말이 다 옳다!”

박관현의 어머니였다. 법정 안이 술렁거리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어.”

“전두환 대통령은 물러나라!”

“박관현이 옳다!”

박관현은 최후 진술을 이어갔다.

“전두환 정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항쟁의 시작에서 빠져나간 부끄러움을 간직한 제가 심판할 것입니다.”

1982년 10월, 박관현은 제3차 단식에 돌입했다. 특수 징벌방에 갇혀 단식을 계속 하자 민주 세력들과 성직자들이 교도소장한테 처우 개선과 징벌 조치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박관현은 징벌방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도중에 실신하여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장기 단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피를 토하는 등 급성 폐부 증세를 나타냈다.

10월 12일 새벽 2시, 결국 그는 피를 토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 ▶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 진상 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 ▶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 ▶ 1988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 ▶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를 외치며 송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송실대생 박래전



박관현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 해직되고 투옥되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우리의 민주화 정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최근에 들어서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더 이상 헛된 죽음과 고난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수환

1922. 6. 3. ~ 2009. 2. 16.



가톨릭 성직자·추기경, 제2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1987년 4월 13일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헌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

이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경찰에 밀린 시위대가 명동 성당으로 피신했다.



오늘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가 강제 진압을 할 것입니다.



경찰이 들어와 학생들을 잡아가려면 먼저 나를 뺀고 지나가야 할 것이며...



시한부 농성 중인 신부들을 뺀고 지나가야 할 것이며...



또 그 뒤엔 수녀들이 있으니 그들 역시도 뺀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명동 성당에서의 작은 승리로 인해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냈다.



## 침묵의 시대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했다.

말하고자 하지만, 말을 못 하는 강요된 침묵의 시대. 모두가 침묵한다면 지나간 겨울을 지나 다시는 봄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수환 추기경의 온몸을 덮쳤다. 그나마 답답했던 마음이 찬바람과 함께 쓸려내려 간 것 같았다.

문득 시계가 보였다. 밤 11시 30분, 성탄 자정 미사 시각이 다가왔다.

“추기경님!”

언론 기관을 담당하는 신부가 문을 열고 추기경실에 들어왔다.

“생방송 시작 30분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고 나가지요.”

12월 24일 밤, 즉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성탄 자정 미사를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1971년 12월 24일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던 날, 김수환 추기경은 굳은 결심을 했다. 이대로 침묵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낼 빛이 필요한 시간이다.

3선 개헌으로 1971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으름장을 놓았다. 국회 동의 없이 긴급조치를 발동해 철권통치를 공고하게 할 생각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긴장한 표정으로 강론대 앞에 섰다. 주변을 둘러보고는 KBS TV로 전국에 생방송 되는 자정 미사 강론에서 입을 열었다.

“나는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양심 있는 국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화합을 깨고, 평화에 해가 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에 명동성당에 있던 많은 천주교인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KBS도 난리가 났다. 종교계를 대표하는 김수환 추기경이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자정

미사를 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내며 당장 방송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때마침 방송 책임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나머지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그 취지와는 다르게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와 겨레에 불행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이 성탄과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온 겨레와 만민에게 이 평화의 은총을 거둬 빕니다.”

추기경의 강론이 끝나기 직전 방송이 끊어졌다. 추기경으로서는 할 말을 모두 한 셈이었다.

이튿날 아침, 청와대에선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추기경을 비난하는 말들이 나올 때쯤 서울 시내 대연각 호텔에서 큰 화재 소식이 들렸다. 이 화재로 모두 165명이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대응책은 흐지부지됐다.

## 성장기

일제의 서슬 퍼런 통치가 한반도를 짓누르던 1922년, 대구의 독실한 천주교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수환은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랐다. 하지만 어린 수환은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웅기 장사를 해 돈을 모은 후 25살 때 결혼하고 싶었다. 그런데 신부가 되라니, 수환은 거절은 못 하고 마음속에만 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확고했고 수환은 형인 동환과 함께 성직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가톨릭 재단이 경영하는 서울 **소신학교**인 동성상업학교에 입학했다.

동성상업학교는 일반 상업학교 과정인 갑조, 신부가 되려는 학생들이 다

---

**소신학교**(小神學校) 사제를 지망하는 청소년에게 중등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신학교. 대신학교(大神學校)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가톨릭의 학교 중에서 최고학부에 속하는 학교를 말함.



김수환

나는 소신학교인 을조로 나뉘어 있었다. 가끔은 갑조 선생님들이 을조 수업에 들어 오시곤 했는데, 선생님들은 3·1 운동이니 일제의 식민 통치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소년 김수환의 가슴에는 울분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 조국이 안타깝고 또 미안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1939년 소신학교 졸업반인 5학년 시절 시험을 볼 때였다.

“조선 청소년 학도는 천황 폐하의 칙유를 받은  
황국신민으로서 소감을 써내라.”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인 조선 총독부가 각 학교에 내린 특별 지시에 따른 문제였다. 김수환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름을 써 놓곤 교실 밖으로 나갔다.

“나는 황국신민이 아님. 따라서 소감이 없음.”

예상대로 김수환은 교장실로 불러갔다. 교장 선생님은 장면 박사였다.

“어찌자고 이런 답안을 쓴 것인가?”

“평소에 생각하던 제 소신입니다, 교장 선생님.”

“소신이라고? 이게 만약 조선 총독부에 알려지면 자넨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 학교까지 문을 닫아야 할 중대한 문제라네. 또 가톨릭 교회 역시도 박해를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네.”

“그렇게 염려되시면 시험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찰싹!

인자하고 온화하신 장면 선생님이 김수환의 뺨을 때리셨다.

“자넨 위험해서 신부가 되면 안 되겠다.”

---

**장면**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



김수환

후회는 없었다. 다만, 신부가 되길 기도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김수환은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이곳에서 학교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졸업을 두 달 앞두고 대구 대목구(교구)의 무세 주교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만났다. 무세 주교는 김수환의 후견인이었다.

“스테파노, 일본 상지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오너라.”

무세 주교의 뜻밖의 말에 김수환은 내심 놀랐다.

“네?”

퇴학이 아닌 유학이라니.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더군요. 이곳에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기쁘다.”

무세 주교는 활짝 미소를 지었다.

김수환은 일본 상지대학교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했다. 1944년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된 수환은 같이 유학 온 친구들과 비밀리에 만나 일본 군대에서 훈련을 다 받고 중국으로 탈출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는 충칭(중경)으로 가자고 결의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전쟁이 끝나 그는 다시 상지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김수환은 대신 학교인 서울 성신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1951년 9월 15일 대구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의 나이 29살 때 일이었다. 김천 본당에서 사제 생활을 하던 중 1956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독일 유학 도중에 그는 평생의 화두가 될 사건과 부닥치게 된다. 바로 바티칸 공의회였다. 공의회는 로마 교황이 소집하는 전 세계 주교 총회로 2,000년 동안 단 21회가 열릴 정도로 세기적인 대사건이었다. 변화와 개혁, 대화와 화해. 바로 가톨릭이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었다. 김수환은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

**주교** 가톨릭이나 성공회 등에서의 성직자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인 신부와 달리, 주교는 가톨릭에서 교구를 관할하는 성직자를 말함.

1966년에 김수환 신부는 주교가 되어 마산 교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총재 주교도 겸임했다.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총재 주교 시절 강화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다. 김수환 주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강화도에 있는 심도직물 사장의 노조원 탄압과 부당 해고 소식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었다. 기독교 쪽도 천주교와 함께 노력했지만, 심도직물을 비롯한 강화도 직물 공장주들은 눈 하나도 꿈쩍하지 않았다.

“하하하. 그거 보라고? 내가 뭐랬어? 재네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말 한마디만 하면 아웃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노조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자들은 공장에 나와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지요.”

“이참에 다시는 노조를 못 만들게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김수환 주교는 속이 탔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천주교인들이 70만~80만 명 정도여서 사회적 영향력도 그리 크진 않았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노동자들이 탄압당하는 걸 볼 순 없었다.

“강 신부!”

“네, 주교님.”

“다음 달에 교황청 대사가 서울로 부임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주교님.”

“그럼 교황청 대사관에서 환영 미사를 거행할 테니 주교님들이 모두 모이시겠네요.”

“그럼요. 주교님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김수환 주교는 교황청 대사 환영 미사에 모인 주교들에게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주교들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의논했다.

“그럼 심도직물 노조 문제는 우리 주교단들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리하지요.”

14인의 주교단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 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노동력 착취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범하기 쉬운 자본의 횡포다. 따라서 주교단은 강화본당 신부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지지한다. 인간의 기본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수호되어야 하므로 주교들은 부당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당신들, 이렇게 사회적 물의나 일으키고 말이야. 당장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세요.”

정부 당국자의 전화를 받은 강화도 직물 회사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이번 사태는 교회가 사회 문제에 뛰어들 후, 옳은 방향으로 해결된 첫 번째 사례였다.

1968년 대주교가 된 김수환은 서울 대교구장으로 옮겼다. 그다음 해인 1969년 김수환은 47세라는 나이에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 그러다 보니 김수환 추기경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추기경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추기경이 되었다. 본의 아니게 그는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추기경은 수차례 시국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사회적으로 여파가 컸다. 그러자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에서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통화 내용 감시는 물론이고 24시간 내내 김수환 추기경의 활동을 감시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는 긴급 조치 제4호를 선포하였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 교계제도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 지위로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학련)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 조치 제4호를 선포한 것이었다. 경찰은 1,024명의 학생을 연행하고 253명을 군법회의에 넘겼다. 이 공판에서 7명이 사형 선고를, 7명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가톨릭 쪽에도 지학순 주교와 김지하 시인이 관련되었다.

1974년 7월,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갔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추기경님, 종교란 마음의 정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가 정치, 경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고유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말로 추기경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다르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 부패로 썩어가는데도 교회가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부 인사나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문제에서 인간 기본권이 유린당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꽤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래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추기경은 민청학련에 연루된 학생들을 죽이지 말고 관대하게 처분한다면 국민이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아, 그리고 오늘 밤 지학순 주교를 풀어줄 테니 중앙정보부에 가서 모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사형선고를 받았던 3명은 감형받았다. 하지만 지학순 주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 양심선언을 했다.

“이른바 유신 헌법이라는 것은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박정희는 이 소식에 화를 내며 지학순 주교를 구속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톨릭 각 교구에선 시국 기도회를 열어 유신 정권의 탄압을 규탄했다. 또 젊은 사제들이 들고일어나자 다음 해인 1975년 2월에 석방되었다. 석방 소식을 들은 김수환 추기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나를 밟고 지나가라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오늘부로 모든 개헌 논의는 금지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구속 수사와 더불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에 호헌 조치(1987년 4월 13일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무시하고 말 그대로 현행 헌법대로 간접 선거 형식으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뜻이었다. 이어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 은폐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들이 서울대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해 물고문을 가하다 사망케 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전국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6월 9일엔 연세대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이한열이 머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 뒤 이한열은 1987년 7월 5일 사망한다.

“독재 타도!”

“호헌 철폐!”



1987년 1월 26일 경찰의 물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군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출처] 한국일보



김수환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특히, 명동에서 시위가 격렬했는데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시위대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4시쯤 무차별적인 최루탄 발사와 진압으로 많은 시민과 학생이 명동성당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추기경님, 추기경님!”

“왜요? 무슨 일입니까?”

“시위대가 성당 마당 옆 문화관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음 ……”

“어찌할까요?”

“그들은 길 잃은 양들입니다. 이곳이 마지막 은신처이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

“…….”

“추기경님!”

“허허허,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의 손에는 여전히 화염병과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다. 이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밤이 늦어지고 명동성당으로 밀려들어 오는 시위대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경찰은 더 이상의 시위대 합류를 막기 위해 명동성당 주변을 봉쇄했다.

다음 날이 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명동성당 앞으로 진출했다. 성당에 잠시 일을 보러 온 사람들과 시위대는 엄청난 최루 가스로 큰 고통을 당했다. 이에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병도 주임 신부가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최루탄을 쏘는 것은 예수께 총부리를 대는 것이요, 만일 계속 최루탄을 쏜다면 전두환 정권이 가톨릭교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김병도 신부의 강력한 항의에 놀란 경찰은 성당 주변에서 물러났다.

“주임 신부님의 항의에 경찰이 물러났습니다만, 언제 다시 물러올지 또 최루탄을 쏘지 알 수 없습니다.”

“음 ……”

“추기경님, 정부 당국자가 만나 뵙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언제 온답니까?”

“오늘 밤입니다.”

“그럼 김병도 주임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자들은 당시 안전기획부 차장과 치안국장이었다.

추기경과 두 신부는 그들을 맞이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내일 아침에 명동성당으로 경찰을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잠시 피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위대를 연행하겠습니다.”

김병도 신부와 함세웅 신부가 반박하려 하자 잠시 침묵하고 있던 김수환 추기경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무척이나 단호했다.

“경찰이 성당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시한부 농성 중인 신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신부들 뒤에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학생들은 수녀들 뒤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포하려고든 나를 밟고, 그다음 신부와 수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

정부 당국자들은 추기경의 단호함에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지 않은가? 정부 당국자들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려다가 얼핏 추기경의 표정을 살폈다. 인자한 표정,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날카로운 표정. 추기경의 얼굴엔 모든 표정이 다 들어있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추기경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한 양으로 변신해 추기경께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추기경실을 나갔다.

“추기경님!”

“추기경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두 신부는 추기경의 말에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하는 추기경을 누군들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수환

“모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은 곧 추기경님의 뜻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도 주임 신부님이 시위대를 보며 말했다. 시위대는 주임 신부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시 멈췄다.

“우선 여러분의 손에서 화염병과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성당 입구의 바리케이드도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시위대에서 김병도 주임 신부의 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신부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곳에는 이미 40여 명의 신부님이 모여 있습니다. 유사시 우리는 온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은 신부님의 말을 들곤 수긍했다. 그래서 화염병도 돌도 모두 버리고 바리케이드도 치웠다.

이어 성당과 정부 당국자가 협상하고 있을 무렵, 매일매일 명동성당 주변으로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 등 많은 시민이 모여 이들을 응원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명동성당 사태를 의논했다.

“어제 안기부 차장과 치안국장이 모두 설명했습니다만, 성당을 진입하는 건 정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당장 교황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가톨릭 국가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만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진입하면 문제가 커지니 성당 측이 자진해서 학생들을 설득해 농성을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그만.”

전두환 대통령이 답답한 듯 나섰다. 이대로 강경하게 진압했으면 좋으련만, 올림픽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도 저도 할 수 없었다.

“시경 국장?”



“네, 각하.”

“오늘 저녁에 추기경을 만나서 추기경 말대로 다 해줄 거라고 말하고 오시오.”

“그럼?”

“그래, 오늘 자정을 기해서 전부 나가라고 해. 안 잡을 테니까. 모두 다.”

전두환 대통령은 성당과 추기경에게 진 것 같아서 분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전두환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

“평화적으로 끝이 나서 다행입니다.”

“네, 추기경님. 저도 정부에 있는 분들도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신부님들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버스를 불러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까지 운행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부님들 몇 명이 타실 예정이고요. 우린 학생과 시민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기경의 말대로 학생과 시민은 사제단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또 6월 25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역설했다.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해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수용한 6·29 민주화 선언을 했다. 국민의 6월 민주 항쟁의 승리였다. 일본에 있던 김수환 추기경이 7월 1일 김포공항으로 귀국하자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번 6·29 민주화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추기경님, 이번 사태에 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추기경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는 입을 열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추기경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암흑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1998년 김수환 추기경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사임을 수락받았다.



김수환

이미 6년 전부터 서울 대교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황은 허락하지 않았다. 좀 더 교구를 위해 봉사해 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추기경은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며 거듭 사임 청원을 보냈고 결국 교황은 그의 사임을 수락했다. 2007년, 건강이 악화된 추기경은 2009년 2월 16일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로 **선종**하셨다. 추기경의 나이 87세 때였다. 선종 이후 많은 국민이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당시 명동성당을 찾은 조문객은 약 40만 명에 이르렀다.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암울했던 시절 그는 한 줄기 빛이었다.





기획 · 편집 **EBS** 

##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4>

발행처 국가보훈처

인쇄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인터넷 <http://edu.mpva.go.kr>

전 화 1577-0606(대표)